



소개나루

GYEONGGI PYEONGTAEK
PORT CORPORATION MAGAGINE 2020

VOL.01
SPRING | SUMMER

평택 발자취 | 또 누가 있어 영웅바위를 노래할까
평택항 자기소개서 | 물길따라 평택을 느끼고 기록하다

탐사기획 경기평택항만공사

물류마케팅팀 | 중소기업 수출물류지원사업

소설 | 평키타운

우리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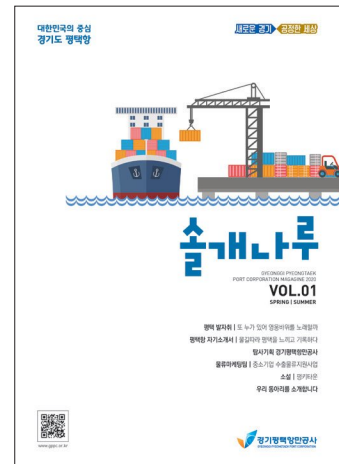
www.gppc.or.kr



평택항이 들어서기 전 솔개바위 마을 산기슭에 솔개바위라는 바위가 있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평택항을 '솔개바위 나루'라는 이름으로 즐겨 불렀다.
평택항의 옛 이름을 따와 사보 명을 '솔개 나루'라고 지정했다.

C·O·N·T·E·N·T·S

- 04 창간사**
평택항 미래를 열다
- 06 축사**
솔개나루 창간을 축하합니다
- 07 사보는 기업문화를 싹틔우고 꽃피우는 토양**
- 08 평택발자취**
대진과 영웅암 이야기 | 또 누가 있어 영웅바위를 노래할까
- 14 평택항 자기소개서**
물길따라 평택을 느끼고 기록하다
- 20 탐사기획**
경기평택항만공사
경영기획팀 | 항만사업팀 | 물류마케팅팀 | 시설운영팀
- 48 오늘의 목소리**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는 평택항! 경기평택항만공사!
- 50 항만통계**
항만이 알고싶다
- 52 생생정보통**
마린센터 입주기업: (주)정방
- 54 이웃 기업인**
기업인 인터뷰
- 58 천기누설 건강비법**
현대 직장인들이 쉽게 걸리는 질병 BEST 5
- 60 식도락**
서해 꽃게
- 62 문화가 좋다**
책 & 영화
- 64 청년화가 인터뷰 | 젊은 청년이 그리는 동화**
- 70 소설**
박영식 장편소설 | 핑키타운
- 94 동아리 소개**
우리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 위세일 · 세반어
- 96 책을 읽읍시다**
스티븐 코비 지혜의 말 | 살고 사랑하고 업적을 남겨라
- 97 GPPC TMI**
- 98 You Quiz?**
- 99 편집자 발행후기**



사보 '솔개나루'가
평택항의 성장과 발전상을 널리 알리고,
앞으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평택항 미래를 열다

안녕하세요.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문학진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평택항과 공사의 발전, 그리고 사보 '솔개나루' 창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경기평택항만공사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평택항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 오늘날의 평택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평택항은 지난해 컨테이너 물동량 72만 TEU 달성, 9년 연속 자동차 수출입 물량 처리 1위 등 환황해시대의 동북아 물류 중심의 국제무역항으로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평택항 발전의 토대 위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택항은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역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물동량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평택항과 공사는 이를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찾음으로써 극복하고자 합니다. 공사는 스마트 항만, 친환경 항만 구축 등을 통한 미래 혁신 항만을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내연기관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소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수출에 앞장섬으로써 친환경 자동차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자동차 산업과 동반성장을 이룩하고자 합니다.

사보 '솔개나루'가 평택항의 성장과 발전상을 널리 알리고, 앞으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여 경제성장 둔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만들도록 합시다.

회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과 가족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계획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문학진

새로운 경기 > 공정한 세상

솔개나루 창간을 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사보 '솔개나루'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2001년 평택항의 항만 인프라 개발 촉진과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경기도 유일의 글로벌 무역항인 평택항 활성화를 이끌어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공사는 설립 이후 국내외 포트세일즈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평택항이 경기도를 넘어 우리나라 대표 항만으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그러나 WTO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세계교역량이 최대 32%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수출입의 대부분을 해운에 의지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해운물동량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위기를 다시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을 고민해야 합니다. 평택항을 해양운송 거점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타 항만과의 치열한 경쟁은 불가피하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신시장 개척 등 어려움 해결할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공사에서 앞장서서 해주길 바랍니다.

사보를 통해 공사의 내부 소식을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평택항 종사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매개체로서 많은 독자들의 사랑 받길 바랍니다.

경기도도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평택항이 해양운송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평택항 대표 소식지가 되길 바라며, 다시 한 번 솔개나루의 창간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경기도지사 이재명

사보는 기업문화를 싹틔우고 꽃피우는 토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장 정장선입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적극적인 마케팅 차원에서 평택항 유관기관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사의 주요 소식은 물론 평택항 운영 전반에 관한 홍보를 위해 사보를 창간한다는 기쁜 소식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2001년 7월 설립된 이래 서부두 일반부두 2선석 운영, 평택항 홍보관 운영, 경기도 물류부지 및 자유무역지역 관리는 물론 평택항 인프라 개발 촉진과 국내외 마케팅 추진으로 평택항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최근 해운업계는 미국과 중국 무역분쟁에 따른 경기침체는 물론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내수부진, 수출경기 둔화, 일자리 감소 등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택항 활성화와 물동량 증대를 위해 평택직할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경기도, 평택시 등 유관기관 간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한 시기이며, 그 어느 때보다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평택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귀사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글로벌 해운·항만변화에 맞춰 평택항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다기능 종합거점항만으로 도약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 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사보(社報)는 기업문화를 싹틔우고 꽃피우는 토양이며, 감성과 소통 경영의 전략적 지원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보 창간을 계기로 평택시민이 평택항에 대한 관심이 증진됨은 물론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역할과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이 구축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사보 창간을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평택시장 정장선

대진과 영웅암 이야기

또 누가 있어 영웅바위를 노래할까



한도숙 글

평택농민회 회장 역임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역임
한국농정신문사 사장 역임
평택섬길추진위원

저서

시집 『딘고 선 땅』 외 2권, 컬럼집 『고구마꽃이 피었습니다』



윤한택 주석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연구원
경기문화재단 전문위원
고려대학교 문학박사(고려시대사)
서울대학교 경제학사

저서

『근대 동아시아 외교문서 해제』, 『바로 보는 우리 역사』(공저), 『사회과학개론』(공저)
『고려전기 사전연구』, 『고려 양반과 兩班田연구』, 『고려국경에서 평화시대를 묻는다』

평택이 바다를 끼고 있는 해양도시로 알려진 것은 근래에 들어와서 평택항이 자리 잡으면서 부터이다. 그전에 평택은 그저 내륙의 한 지역으로만 인식 되었다. 지금도 평택이 항구도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평택지역은 오래전 삼국시대 이전부터 포구와 나루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고 바다와 수로를 통한 내륙 지역을 연결하는 거점이었다.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삼국사기이다. 백제본기 온조왕 24년(AD6년)기록에 온조왕이 웅천에 목책을 쌓았을 때 목지국(目支國) 진왕(辰王)이 꾸짖기

를 “왕이 처음 강을 넘어와 머무를 곳이 없을 때 내가 동북으로 1백 리의 땅을 주며 정착을 돕지 않았소?”¹라고 했다. 이를 보면 온조가 직산 위쪽 안성쪽에 도움을 한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을 하게 한다. 백제 초기 하남 위례성인데 지금 천안의 위례산(慰禮山)과 부아산(負兒山)이 이름으로 남아있다. 여기서 강은 안성천을 말하는 것으로 온조왕이 비류를 미추홀(彌鄒忽)에 남기고 아산만을 따라 직산 근처로 온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는 서거정의 기록²에도 직산이 백제의 처음 도움지였다고 한다. 지금도 직산에는 온조왕 제각이 있다.

1 王作熊川柵 馬韓王遣使 責讓曰 王初渡河 無所容足 吾割東北一百里之地 安之[『삼국사기』백제본기 제1 온조왕 24년 추7월]



이 기록이 사실 이라면 평택항의 역사는 온조왕이 도읍을 정하는 BC18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평택항의 영웅바위

교통이 어려운 70년대 평택 사람들은 싱싱한 회맛을 보기위해 만호리로 갔다. 지금의 솔개바위가 남아있는 평택해양파출소 뒤편이 바로 배가 닿을 수 있는 부두로 연결된 길이다. 여러 횃집이 있었고 어선들이 즐비하게 정박한 포구였다.

포구에서 바라보는 아산만의 바다는 검고 푸른 바다였다. 그 바다 가운데 멀리 영웅바위가 있다. 영웅바위를 지금은 온전하게 볼 수가 없다. 1701년(숙종 27) 3월 6일 벼락으로 부서진 탓이다.³ 근대의 길목에서 청일전쟁의 모진 시련을 먼저 예감하기라도 한 것일까.

영웅바위는 지역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바

다 가운데 마치 등대처럼 우뚝 솟은 모습이 어느 영웅을 닮아 있었다. 지금은 많이 허물어져 버린 탓에 일개 갯바위에 지나지 않는 모습일 뿐이다.

영웅암은 전설도 전설이지만 항로표지가 없던 지난날엔 배가 가는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을 것이다. 당진 한나루에서 건너오는 배나 멀리 덕적도에서 새우젓을 싣고 들어오는 배가 항로를 놓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갈 수 있었던 중요한 표지가 되었다. 지금이야 30m에 지나지 않는 높이지만 옛날에는 백척간두의 높이로 사람에게 위압과 경외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바다의 깊이는 항해에 많은 영향을 준다. 육지가 가까우면 큰 배가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아진다. 아산만의 조수간만차가 9m에 이르는데 잘못 들어오면 갯벌에 들어엎혀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이 바다를 통해 행담도에 정박하고 증선으로 갈아타고 남연군 묘를

2 『사가시집보유(四佳詩集補遺)』제3권 시류(詩類) 「직산제원루시(稷山濟源樓詩)」서(序)

3 『숙종실록』35권 숙종 27년 3월 20일 충청도(忠淸道) 서산(瑞山) 땅의 큰 해구(海口)에 있는 영공암(令公巖)이 이달 초 6일에 구름과 안개 속에서 갑자기 벼락으로 부서졌다.

파헤치러 갔다는 기록을 보면 오페르트가 타고 온 배의 규모는 굉장히 컸 던 것으로 보인다.

1894년 6월 6일 청군이 아산 백석포에 상륙했다는 일본 영사의 보고서에 여흥암(礪興岩)에 청국 군함이 정박했다라는 기록이 있다.⁴ 청국 군함은 아마 영웅바위 부근에 정박하고 소형 선박들로 백석포에 상륙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여흥암이 어디냐는 것이다.

본래 영웅바위는 여러 가지로 기록 되는데 영웅암(令翁岩)은 대동여지도⁵와 18세기 후반 지승(地乘)⁶이라는 지도에 함께 나타난다. 영웅은 지방수령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이것은 토정선생(土亭李之菡)을 일컫는 말로 보인다. 이지함이 아산현감으로 있을 때 이 바다가 갈라지면서 영웅바위가 우뚝 섰다고 하는 전설이 있다. 18세기 광여도(廣輿圖)의 수원부에는 합옹암(合翁巖)⁷으로 나온다. 1872년 아산현 지도에는 영웅암(靈雄岩)⁸이라고 글자를 달리해 나타난다. 글자를 잘못 옮겨 적거나 소리대로 다른 글자를 적거나 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일본 영사 보고서에 여흥암도 일본인이 잘못 듣고 쓴 것으로 보인다.

시인 묵객들이 충청도 홍주에서 바다를 건너 한양으로 오갈 때 영웅암이 예사로 보이진 않았을 터이다. 그들의 글 편이 남아있어 그중 하나를 옮겨본다.

令公⁹巖乃在大津之中央 / 영공암은 바로 대진 한복



판에 있는 바위

海濤日夜聲澎湃/ 파도가 밤낮으로 소리내며 부서 지나

屹然不移亦不僵/ 꼼짝 않고 꼬떡없이 서 있는 모습
嗟乎時質堅且強 / 아 산의 바탕 굳세고 강함이며
有如大人特立扶天綱/ 대인이 우뚝 서서 하늘을 떠 받치는 듯

舟人敬之報馨香/ 뱃사람들 공경하여 제사 올리며
呼以令公名固當/ 영공의 이름 붙인 것도 당연하다
다 하리로다(중략)

削平胡羯安黔蒼/ 오랑캐 평정하고 민생 안정시킬꼬

택당 이식 선생집(澤堂李植先生集) 시(詩)¹⁰

4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권 > 二. 全羅民擾報告 宮闕內騷擾의 件 二 > (21) [清國軍 牙山上陸에 따른 諸報告] 발신일 1894년 6월 8일 오후 12시 발신자 在仁川 二等領事 能勢辰五郎 수신자 臨時代理公使 杉村藩] 京第30號

5 令翁岩. 덕산(德山) 경계 내에 포함. 삼도(三島)는 수원 경내.

6 令翁岩. 수원부(水原府). 마포진(磨浦津) 안에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오동도(梧桐島), 아산도(牙山島), 진도(津島) 세 섬이 있고 이에 이어서 양성 괴태곳 맞은편으로 크게 그려져 있다. 『지승(地乘)』, 편저자 미상, 규15423-v.1-6, 간행연도 미상, 6책, 채색지도, 필사본]

7 『지승』에서처럼, 오동도(梧桐島), 아산도(牙山島), 진도(津島) 세 섬에 이어 令翁岩이 표시되었던 바로 그 위치에 비슷한 필치로 그림을 그리고, 合翁巖이라고 표기하였다.

8 靈雄岩. 수원지계두봉(水源地鷄頭峯) 앞 행담도(行擔島) 옆에 그려져 있다.

9 보통 방백(方伯)을 영공이라고 불렀다. [한국고전번역원 역주]

영웅암이 있던 그 바다가 지금 평택항이다. 언제 부터인가 영웅바위로 불리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파도에 깎인 몸둥이를 힘겹게 올리며 세파에 시달리며 영웅도 때를 못 만나니 한갓 갯바위에 지나지 않는 취급을 받을 뿐이다. 영웅바위가 치솟은 이 바다를 오래전부터 대진이라고 불렀고 조선 중후기 지도가 그려지는 시기에 모두 대진(大津)으로 기록 된다.

대진(大津)은 일명 큰 나루, 한진(漢津), 한나루, 솔개바위 나루(鳶岩津)라 부른다. 남쪽 현덕면 권관리 계두진에서부터 포승면 원정리 한나루 까지 모두가 대진이라고 했을 지도 모른다. 지금이야 지역을 구분해서 이름을 붙였지만 오래전에는 접안시설이 없어서 배를 대기 좋은 곳에 배를 대기도 했기에 환경변화나 기상 상황에 따라 배를 대는 곳이 늘 일정하지 않았다.

아산만의 물줄기와 산줄기

1871년 이유원이 쓴 임하필기(林下筆記) 제13권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에서 물의 조종(祖宗-물줄기 근원) 열둘을 열거하는데 세 번째가 대진이다. 대진은 이 물줄기의 아래에 있는 포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물줄기는 현재의 안성천과 진위천 그리고 삽교천이다.

“셋째는 대진(大津)¹¹인데 그 근원이 셋이니, 하나는 양지(陽智 지금의 경기도 용인 지역)의 곡돈현(曲頓峴)에서 발원하고 하나는 청양(靑陽)의 백월산(白月山)에서 발원하며 하나는 공주의 차령(車嶺)에서 시작된다. 돈곶진(頓串津)은 백월산에서 시작하여 북쪽으로 여양(黎陽)을 경유하여 왕자산

(王子山)에 이르러 승선천(昇仙川)을 지나 북쪽으로 행담도(行擔島)로 들어가서 공진(貢津)과 만난다. 미륵천(彌勒川)은 차령의 동쪽에서 시작하여 북쪽으로 덕평향(德坪鄉)을 경유하여 온정천(溫井川)을 지나서 단포(丹浦)가 되어 팔당(八堂)의 서쪽에 이르러서 돈곶진과 만난다. 그리하여 광교산(光敎山), 성륜산(聖倫山) 이남과 칠현산(七賢山), 성거산(聖居山) 이서와 차령, 각흘산(角屹山), 사자산(獅子山), 오서산(烏棲山), 가야산(伽倻山) 이북의 모든 산의 물이 이곳으로 흘러든다.”

그곳이 바로 아산만이다. 그런데 이 물줄기를 소개하면서 강 이름을 말하지 않고 대진이라고 소개한 것이 이상하다. 이는 필자가 주장하는 대진의 범위가 평택 연안뿐 아니라 당진까지도 포함하는 광역의 개념이기에 그리했는지 모른다. 현재 평택·당진항이라고 병기하는 의미를 임하필기가 먼저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평택항 주변 지역에 남아있는 포구들, 권관리 계두진, 장수리 석화진, 신영리 신영포, 신전포, 그리고 만호리 대진, 원정리 한나루, 당진을 보면 한진나루, 안섬포구, 성구미 포구들이 평택과 마주 보며 바닷가 이곳저곳이 포구였다는 사실이다. 영웅암의 전설도 양쪽에서 공유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진은 딱 ‘여기다’ 라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삼국시대부터 이어진 대진의 흔적들

대진(大津)에 대한 역사기록을 보면 이렇다.

“고구려 장수왕은 백제의 한강유역을 점령, 개로왕을 죽이고 (AD475년), 이곳을 상홀현(上忽縣)

10 『택당선생집』 제2권 시 「영공암(令公巖)[면천(沔川)]의 대진(大津) 가운데에 있다.」

11 아산만(牙山灣)을 지칭하는 것 같다. 세 개의 근원이란 아산만으로 흘러드는 안성천(安城川), 삽교천(插橋川) 및 곡교천(曲橋川)을 지칭하는 것이 확실하다.[한국고전번역원. 홍승균 역주]

또는 차홀(車忽-수릿골, 현재 안중읍 용성3리 설창마을)이라 개칭하였으며, 신라 진흥왕은 한성 백제 땅을 빼앗고 신주(新州)를 설치(AD553년), 진천지역의 세력가였던 김무력~김서현~김유신 집안이 백제 의자왕 군대를 격파하여 대진에 대당조공로(對唐朝貢路)를 열었다.(AD649년).

대진(大津)은 해군 가리저(樞郡¹² 可里渚-현 당진군 합덕읍 성동리) 동쪽에 백제의 수군창이 있었던 것을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평정하고(AD660~663년), 신라에서 수관(漕館)¹³을 설치하여 대당 조공로(對唐朝貢路)로 이용하였다¹⁴.”

원효대사와 의상대사는 10년전(AD651년) 육로를 통해 당나라로 가던 계획이 고구려에 막혀 되돌아갔다. 2차 당나라 유학길(AD661년)에 오르는데 이들은 경주를 출발해서 하늘재(계립령)를 거쳐 충북 진천의 도당산성~협탄령(현 엽둔재)~양성~직산~대진나루를 통한 안전행로를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직산은 해석의 여지가 너무나도 많다. 현재 평택항 남쪽 신영리가 직산말이고 오성면 대반3리가 직산말이다. 그리고 현재 직산은 천안시에 있다. 직산현의 월경지가 오성면과 포승면에 나뉘어져 있던 이유인데 어느 직산을 거쳤는지에 관해서는 알 길이 없다. 현재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경로는 양성과 직산이 순서가 바뀌어 있어서 직산 거쳐 양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양성에서 수원으로 갔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나 이 또한 현재의 평택항 일원이 양성땅이라서 그리 확정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할 수 있다.

특히 원효대사의 유명한 해골물 설화의 중심지 역시 ‘해대기곶’으로 지금 ‘괴태길곶(槐台吉串)’이다. 여기는 조선5봉수로가 지나가는 봉화대가 있고(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봉수대) 서남쪽에 염거(廉居, ?~844) 스님이 창건한 사찰인 수도사 터가 전해진다. 현재의 수도사는 산을 넘은 원정6리에 새로 신축한 것이다.

수도사 터에서는 최근 해군사령부 공사를 할 때 불상과 주춧돌이 발견되었다. 마을 사람들의 구전으로 전해지는 원효스님의 해골물 설화는 그를 뒷받침 하는 중요한 근거이기도 하다. 하여튼 원효스님은 대진을 통해 당나라로 가려다 그만 길을 잃고 굴속에 들어가 피곤한 몸을 누였다가 해탈을 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의상은 대진을 찾아 중국으로 건너갔을 터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바탕으로 주변 역사 지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진(大津) 인근 용성¹⁵은 신라 경덕왕이 차성(車城)이라 개칭(AD 757년)하고 당은군(唐恩郡-남양)의 영현(領縣)으로 삼았고, 고려 초 광종7년(AD 965년) 무렵에 용성현(龍城縣)으로 고쳤다.

대진(大津)¹⁶은 조선시대 직산현 왜곳이(外也串, 吾也串) 월경지로 서쪽으로 80리에 있으며, 수원도호부 서남쪽으로 1백리에 있고, 넓이가 10여리인데 조세(潮勢)가 사납다. 가운데에 임진왜란 시 왜군을 물리친 영웅암(英雄岩, 또는 令翁巖)이 우뚝 서 있는데 높이는 1백 척 가량 된다. 만조

12 『三國史記』 卷第三十六 雜志 第五 地理(地理)三 신라(新羅) 혜성군

13 수자리(숙직하는 방)

14 『1872년 지방지도 수원부』

15 용성현(龍城縣) 부 남쪽 50리 되는 곳에 있는데, 본래 고구려의 상홀현(上忽縣), 또는 차홀(車忽 수릿골)이라고 한다. 신라에서 차성(車城)이라 고치어 당은군(唐恩郡)의 영현(領縣)으로 삼았고, 고려 초에 지금 이름으로 고쳤으며, 현종(顯宗) 9년에 와서 본부에 예속되었다. [한국고전번역원『신증동국여지승람』 제9권 경기 수원도호부 【속현】]

16 [한국고전번역원『신증동국여지승람』 제9권 경기 수원도호부 『대동지지』【진도】]

(滿潮) 때에 배로 건너면 홍주(洪州-홍성) 면주(沔州-면천) 등 여러 읍으로 통하는 첩로(捷路)이다.” 라고 기록 되어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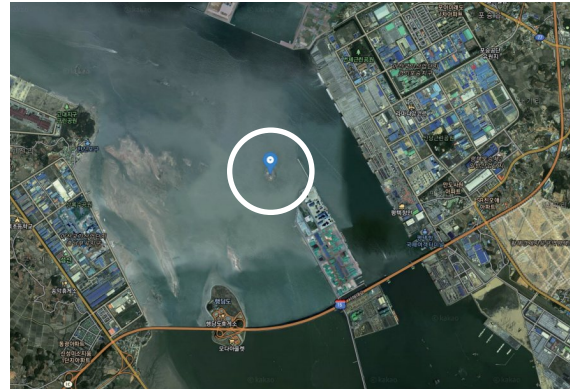
또 수원부 조에는 치소(治所)로부터 남쪽 1백리 지점 포내미¹⁷에 있다고 하였다. 포내미는 포승지역에 있었던 고려시대 지명(포내미 부곡)이다. 통상 대진(大津)이라고 기록되었지만 다른 기록에는 한진, 또는 대포진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이곳 대진의 배후지역은 현 안중읍 용성3리 설창(수리골)인 것으로 보인다. 수리골은 머리를 의미하며 지금으로 말하면 수도가 된다. 고구려가 남쪽으로 이곳을 중요 거점으로 삼았다가 신라에게 빼앗기고 만 것이다. 지금 남아있는 용성은 용성현의 이름이 남은 것이며 설창마을은 창고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이곳을 중심으로 하여 길성리 산성과 비파산성, 자미산성, 무성산성과 남쪽으로 이어지는 덕목리 산성, 기산리 산성들이 대진과 연관된 산성들로, 대진의 배후 읍지였을 가능성이 짙다.

대진(大津)의 포승읍 만호리는 ‘느지’ 또는 ‘느새’라는 전래 자연지명이 있는 곳으로 늘어졌다는 뜻이다. 산이 길게 바다를 향해 늘어진 곳을 느지라 한다. 따라서 천연적인 항구의 입지조건을 보유한 곳이다. 이 나루 부근은 바닷물의 흐름이 사나웠지만 바다 쪽으로 열려있어서 일제강점기에는 당진이나 서산 사람들이 이곳으로 드나들었다.

대진과 영웅암에 대한 기록이 1614년 이수광의 『지봉유설(芝峯類說)』¹⁸에도 나온다.

大津在京畿，忠淸之間。水路三十里。 대진은 경



기, 충청도의 사이에 있다. 수로는 삼십리며, 中有大石。舟觸則碎。俗號賽神令公。 그 중간에 큰 돌이 있다. 배가 부딪치면 부서진다. 세속에 굿의 신, 새신 영공이라 부르며(중략) 或疑令公。卽靈君云。 영공은 의심나고 즉 영군(靈君)이지 않을까

사라진 것일 뿐 없어지지는 않는다

오랫동안 대진은 영공암이 있고 그 영공암이 신령스럽게 바다를 지켜주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뱃사공이나 오가는 객이나 영웅바위에 안전을 기원하는 것은 약한 인간의 마음에 믿는 구석이 된다.

영웅바위는 세파에 시달리며 햇빛은 몸을 바다에 기대어 지난 영광을 추억하기라도 하지만 대진은 이름뿐 아니라 포구도 사라졌다. 만호리 포구는 어항의 역할을 하다가 70년경 어업보상을 받고 모두 평택항의 역사(力事)에 묻혀버렸다. 지금도 평택항에서 배를 타면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닿는다. 2000년의 시공이 다시 연결된 것인가...이제 또 누가 있어 영웅암을 노래할 것인가.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가는 동아시아 지중해의 파수꾼으로서.

17 포내미부곡(浦內彌部曲)·육내미부곡(陸內彌部曲) 모두 부 남쪽 60리 되는 곳에 있다. [한국고전번역원『신증동국여지승람』 제9권 경기 수원도호부 【고적】]

18 『芝峯類說』卷二 地理部 水

물길따라 평택을 느끼고 기록하다



박경순 시인·사진작가

(사) 한국사진작가협회 제12대 평택지부장(역임)
(사) 한국환경사진협회 감사 역임
현재 (사) 한국사진작가협회 29대 이사

개인전

2012년 <자작나무에게 톡톡> | 2013년 <순간과 흐름> | 2018년 <결을 주다>
2020년 <몰아지 鏡> | 2020년 <담유화> 전시 및 사진집 출간

시집

「물푸레나무의 신화 속에서」, 「사랑아 내가 널 쓸쓸하게 했구나」, 「지독한 마법」
「꽃 가운데 김 여사」, 「이팝꽃가문」, 「디테일이살아나는 여자」 등

지난 3월에서 5월 사이 평택숲길에서 진행되는 평택 지역의 물길 조사에 동행하였다. 내 나이에 반이 넘도록 살고 있는 평택에 대해 얼마나 잘 모르고 있었나 하는 괴리감과 호기심이 엇갈리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던 평택은 도·농 복합으로 도시적인 면과 농촌의 모습이 잘 어우러진 곳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계절 감각을 가까이에서 뚜렷이 느낄 수 있는 것이 매력이라고 나름대로 쉽게 결론 내렸었다. 그런데 이번 물길 조사 작업을 함께 하면서 과거에는 평택이 어촌이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웠다. 나는 바다나 어촌에 대해 체감이 적고 외경심이 많은 편이다. 바다와 인접한 곳에서 살아 본 적도 없고 친·인척들이 없기 때문에 그저 낯설고 먼 곳일 뿐이다.

한 마을에서 태어나거나 오래 살고 계신 어른을 소개받아 직접 찾아뵙고 그 분들에게 듣는 생활상이나 지형은 어촌에 가까웠다. 지금은 버젓이 마을이 형성된 육지인데, 한때는 배가 닿는 나루였다고 진술하시는 걸 볼 때마다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같은 마을에 살고 계시는 어른들의 진술은 공통적인 면도 있지만 각자의 기억이 서로 어긋나기도 하였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기억은 점점 흐려지고 같은 정황이라도 기억 장치는 개개인의 몫이라서 정확한 자료 조사가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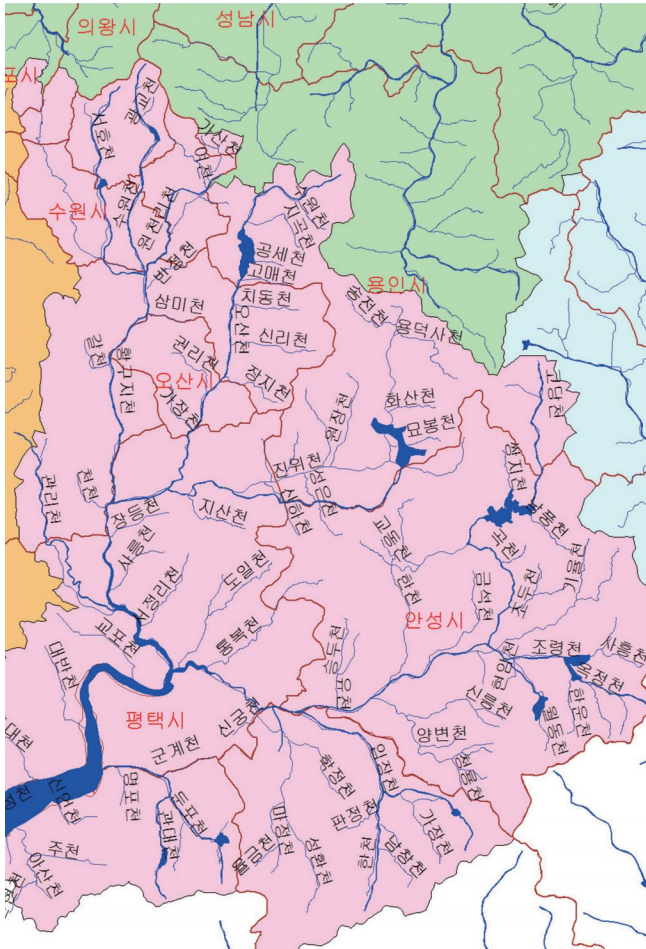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형성되는 조건에는 환경이 중요하다. 그 중에서 식량이 풍부한 곳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자명한 사실이다. 어족이 풍부해서 은빛 물결을 이루며 송어나 강다리 떼가 모여들었다는 걸 회상하는 어르신들의 눈빛에 선홍빛 아가미 같은 생동감이 넘치기도 하였다. 만선의 선박들이 정박한 나루에는 주막도 꽤나 있었다며 그 주막에서의 추억담을 들추며 회심의 미소가 얼굴에 얼비치기도 하였다.

지금은 밭으로 개간되어 잡풀 더미가 된 곳을 보며 만감이 교차하였다. 수령이 500년이 넘는 나무들이 묵묵히 마을을 넘겨다보고 있었다. 100년도 못 사는 우리네 인생이 덧없다는 생각을 하며 마을에 생존해 계시는 어른들을 수소문하여 찾아다니는 일을 좀 더 일찍 시작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남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걸 느꼈다.

코로나 19라는 대란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실행되고 있어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예사롭지 않게 되었다.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이 굳게 잠겨 있고 치매에 걸린 어르신, 안타깝게 세상을 뜨신 어르신 소식에 난관에 부딪치기도 하였다.

그래도 역사적 사실을 조사하고 기록하여 후대에 전하는 일에 참여하며 발품을 파는





일에 사명감이 생기기도 하였다. 일 주일에 두 번씩 조사에 임하는 게 보람으로 느껴져서 다행이었다. 또한 만나는 분들마다 진정성있게 자부심을 갖고 진술하시는 모습은 더욱 감동으로 다가왔다.

마을을 지키기 위해 함께 보를 쌓으며 대가로 담배 몇 가치를 받았다는 이야기, 이동조합을 운영하며 마을 자체 독립적 기반을 다졌다는 사실이나 새우젓과 바꾸던 물물교환의 후불거래는 그 시대의 인정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양지 바른 마당 한 칸에서 봄나물을 다듬으며 당뇨병 남편을 위해 힘들어도 냉이나 썩을 뜯는다는 소박한 아낙, 젊어 보이는 여성 이장님은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이 더 이상 개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

람이 귀에서 떠나질 않았다. 옛 나루터 자리에 표적이라도 해 놓으면 어떤 기록보다 후대에게 확실하게 전달될 거라고 주장하는 모습 등도 인상적이었다. 젊은이들이 떠난 마을에서 농토를 지키며 곳곳이 살아오신 그 분들에게서 근기와 긍지를 엿보며 허약한 내 모습이 자꾸 드러나는 거 같았다.

4월이면 시작되는 이른 더위와 봄의 손님처럼 찾아오는 미세 먼지 등으로 사진에 담은 일도 만만치 않았다. 여름이 오기 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촉박함도 있었지만 한도숙, 이상권 선생들과 한 팀이 되어 조사하는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행군 덕분에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났다. 평택의 포구와 나루가 무려 30여 곳이나 된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다.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박박한 일정들을 잘 소화해낸 일행



들에게 고마움과 뜨거운 동지애를 전하고 싶다.

구술이 서 말이라도 꺾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마을 어르신들의 구술을 잘 기록하여 역사 자료로 남긴다는 것은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어야 할 과제이다. 어르신들의 진술을 녹음하여 그것을 글로 옮긴다는 것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것이다. 지명에 대한 발음이나 동일한 지점에 대한 의견들도 서로 달라 혼동이 따르는 일도 많았다. 그렇더라도 마을 현장의 구술을 듣고 기록하는 일은 온고지신으로 지금의 우리를 돌아보는 일이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뿌리를 알고 정체성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근거와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이번 물길·포구 조사를 하면서 시골에서 보냈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스스럼없이 객을 안으로 들이시던 모습에서 서로 격의 없이 지내던 고향 마을이 그리웠다. 마을 어른들을 방문하며 빈손이던 내 손이 부끄럽기도 했다.

할머니를 따라 고사리 같은 손에 호미를 들고 흙을 북돋우던 감각이 생생히 되살아났다. 그때는 몰랐던 흙의 보드라움이 온몸에 퍼지는 듯하였다. 마을 마다 골목마다 어린 시절의 모습들이 오버랩되어 사진을 찍는데 떨리기도 했다. 그곳에서 그리 멀리 떠나오지 못했다는 게 아이러니 하였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라는 방대한 소설책에서 어린 시절을 바로 어제 일처럼 기억하며 기록하고 있다. 의식의 흐름을 세세하게 묘사하며 자야를 구축해 나갔으리라. 돌아갈 수 없는 시점이나 장소는 한 사람의 토대가 되고 자양분이 되어 주었기에 곳곳이 자신을 지키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라는 생각에 깊이 빠지는 요즘이다.



전세계로 통하는 평택항 운영현황

평택항 정기선 항로


컨테이너 항로 13개 노선


선사	서비스명	기항지	항차수	접안요일	접안선석
장금상선 (+82-31-681-2221)	PQX	평택 - 청도 - 평택	주1	일	PCTC
		평택 - 천진 - 평택 - 천진 - 위해 - 평택	주2	목, 화	PCTC
	PDX4	평택 - 대련 - 위해 - 평택	주2	화, 금	PCTC
	PSS	평택 - 군산 - 광양 - 상해 - 평택	주1	화	PCTC
장금상선/홍아라인	BTS	인천 - 평택 - 부산 - 호치민 - 방콕 - 람차방 - 호치민	주1	수	PCTC
두우해운 (+82-31-8053-5150)	DWS	평택 - 대련 - 평택	주1	일	FNCT
	TJM	평택 - 닝보 - 상해 - 평택	주1	수	FNCT
SITC (+82-02-750-5000)	CKV	평택 - 대산 - 청도 - 상해 - 홍콩 - 하이퉁 - 추라이 - 다낭 - 서코우 - 사먼 - 인천 - 평택	주1	금	PCTC
	PTK	평택 - 석도 - 청도 - 평택	주1	화	PCTC
SEALAND- A MAERSK COMPANY (+82-2-2054-4000 +82-2-2054-4435)	PH3	평택 - 대련 - 신강 - 청도 - 상해 - 닝보 - 카오슝 - 마닐라 South - 마닐라 - 상해 - 닝보 - 호치민 - 다낭 - 옌티엔 - 홍콩 - 바탕가스 - 마닐라 - 카기안 - 제네랄산토스 - 다바오 - 평택	주1	일	PCTC
장금상선/동진상선 (+82-32-888-2274)	IHP	인천 - 평택 - 하이퉁 - 서코우	주1	일	PCTC
남성해운/동진상선/장금상선 (+82-2-758-1834)	NTX	평택 - 광양 - 부산 - 호치민 - 람차방 - 방콕 - 람차방 - 호치민 - 인천 - 평택	주1	월	PCTC
남성해운/고려해운 (+82-2-311-6114)	IHS1	평택 - 인천 - 홍콩 - 하이퉁 - 서코우 - 사먼 - 평택	주1	토	PCTC

국제 카페리 항로 5개 노선

선사	기항지	항차	항차수	선석	평택입항시간	평택출항시간
영성대동해운(주) (+82-31-683-2006)	평택 - 영성 - 평택	화, 목, 토(입출항)	주3회	여객부두	08:30	19:30
연운항훼리(주) (+82-31-684-3100)	평택 - 연운항 - 평택	월 : 입항, 화 : 출항 / 목 : 입항, 금 : 출항	주2회	내항동부두	15:30	화요일 : 01:00 금요일 : 18:30
평택교동훼리(주) (+82-31-684-5999)	평택 - 위해 - 평택	화, 목(입출항) 토(입항), 일(출항)	주3회	여객부두	화, 목, 토 10:00	화, 목 : 19:00 일요일 : 18:00
일조국제훼리(주) (+82-31-686-5894)	평택 - 일조 - 평택	월, 수, 금(입출항)	주3회	내항동부두	월요일 : 11:30 수요일 : 14:00 금요일 : 15:30	월요일 : 18:30 수요일 : 20:30 금요일 : 22:00
연태훼리(주) (+82-31-684-8827)	평택 - 연태 - 평택	월, 수, 금(입출항)	주3회	내항동부두	월요일 : 10:00 수요일 : 10:00 금요일 : 10:00	월요일 : 19:00 수요일 : 19:00 금요일 : 19:00

전세계로 통하는 물류허브

 정기 컨테이너 항로

 국제 카페리 항로



경기평택항만공사

경영기획팀 | 항만사업팀 | 물류마케팅팀 | 시설운영팀





2001년 7월 6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기평택항만공사는 1본부 5팀 정원 외 23명 포함 5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운영, 항만물류시설 조성, 관리 및 임대운영, 항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외·민자유치 및 그와 관련된 투자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행 및 위탁업무, 마리나, 도서, 해양관광레저 등 해양개발사업입니다.

경영기획팀에서는 공사의 기획과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공사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와 이러한 계획을 통해 각 팀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지지하고 돕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중장기 경영목표 수립

먼저 공사의 경영목표 및 그에 따르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된 중장기 계획에 따라 경영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고 매년 연간 사업계획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미션	우리는 평택항을 글로벌 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가·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			
비전	환황해 글로벌 복합허브항만 구축을 선도하는 항만운영 전문기업			
핵심가치	공정(公正)	공감(共感)	신뢰(信賴)	변화(變化)
전략목표	항만 인프라 활성화	고객중심 항만마케팅	항만공사수익성 강화	사회적가치 기반 경영체계구축
전략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만배후단지 적기조성 배후단지 등 운영 서비스 고도화 항만인프라 구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동량 유치 확대 고객중심 홍보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만공사 자산가치 증진 대행사업 관리 고도화 신규수익사업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 조직문화 기반 전문성 강화 사회적 가치구현 경영체계 구축 사회적 책임의 선도적 실현

조직/인사/노무



2020년 제1회 노사협의회

경영기획팀은 내부직원들이 공사에 대한 애사심을 높일 수 있는 Good Work Place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직제 등 공사의 조직 운영관리와 중장기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 후 직원들의 채용, 평가, 승진, 퇴직 등을 담당하는 인사업무를 경영기획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과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사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매분기마다 노사협의회를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노사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과 평택대학교 협약을 통한 방학 중 인턴제도에 참여하는 공사 인턴직원들의 관리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팀은 내부직원들이 공사에 대한 애사심을 높일 수 있는 Good Work Place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직제 등 공사의 조직 운영관리와 중장기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 후 직원들의 채용, 평가, 승진, 퇴직 등을 담당하는 인사업무를 경영기획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과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방안을 마련

이사회

이 밖에도 공사의 다양한 사업추진을 결정하는 이사회 등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기관장 및 비상임이사 부재시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 통해 임명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경기도의회

그리고 공사의 상임위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매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통해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는데 경영기획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

마지막으로 매년 공사에서 추진한 다양한 사업과 협력사항 등 경영실적에 대해 평가해 등급을 산정하는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서 하는 경영평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연계되어 매년 기관장 경영성과 계약 수립도 경영기획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회계/재무

그리고 경영기획팀은 중장기 계획에 따라 중장기 재무계획을 수립합니다. 또한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 같은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신규사업을 앞두고 자금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웁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제73회 이사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평택항 현장방문



경기평택항만공사 경영평가 집체심사

매년 사업계획에 따른 다양한 사업들을 각 팀에서 진행하기 위해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비를 지출하는 등 자금을 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법인세, 부가세 등 세무관리와 분기, 반기, 연간 회계결산을 통해 편성된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등 공사의 자금흐름을 분석합니다.

또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용역을 맡길 때 또는 대규모 물건을 구매할 때 계약체결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인건비와 성과급 지급, 이에 따르는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 등을 처리 합니다.

청렴/윤리/인권/제규정

경영기획팀에서는 사업 추진, 자금의 운용과 계약 체결 등의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청렴, 윤리, 인권 분야에서 문제가 없는지 감사·감독 합니다.

또한 감사원, 경기도, 경기도의회, 세무서에서 실시하는 감사에도 자료제출 등에 대비해 총괄 대응을 합니다.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식

홍보

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

고 동시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모으기 위해 언론을 대상으로 보도자료 작성·배포, 신문, 라디오,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광고를 진행하고, 홍보물 제작, SNS 운영 등 통해 홍보를 진행합니다.

전산/네트워크/개인정보보호

직원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산과 네트워크를 정비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복리후생

또한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마련하는 등 가족친화경영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같은 선택적 복지제도, 휴양시설 운영, 건강검진 등 복리후생 등 통해 직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항만사업팀 황두건 팀장님을 모시고
항만사업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항만사업팀의 팀원 구성에 소개해주세요.

저희 팀은 김남균 대리, 나현지 대리, 최순호 주임, 최재영 주임 그리고 팀장인 저를 비롯하여 5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로 뛰어야 하는 사업 부서인 만큼 비교적 젊은 팀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2 항만사업팀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항만사업팀은 팀명에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항만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으러 다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맡고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항만 인프라 조성 사업과 경기도의 해양레저 사업, 평택항의 항만 통계의 고도화 사업, 신규 사업 전략 수립 및 발굴 등이 있습니다.

Q3 항만사업팀에서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 있을까요?

신규 사업 발굴을 찾아내서 발굴하고 전략을 수립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역량은 창조적 사고 방식과 도전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규 사업이란 먼저 각기 다른 여러 분야의 내용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러한 경험을 연결하여 새로운 것을 합성해내는 것이 바로 창조적 사고 방식입니다.

아울러 그러한 창조적인 사고를 통해 합성해낸 아이디어를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도전 정신 또한 바로 사업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항만 배후단지 개발 사업을 맡고 계시는
김남균 대리를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Q1 항만 배후단지가 무엇이며, 조성이 완료되면 평택항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먼저 항만배후단지는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시설 전반을 지칭하며, 항만을 이용하는 선사, 화주, 포워더, 물류 기업 등 항만 이용객 모두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조성합니다.

또한 항만배후단지의 조성이 진행되면 단기적으로는 건설로 인해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으며, 건설공사 준공 후에는 물류, 제조 등의 영구적인 사업장이 입지하여 평택항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부수적으로는 화물차 주차장, 상업시설 등의 항만근로자들을 위한 편의시설까지 입지되어 사람이 모이는 활기찬 평택항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2 현재 항만배후단지 조성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조성 사업은 어떻게 될 것으로 전개될 예정인가요?



2-1단계(1종) : 공사 출자
·면 적 : 113만m ² (34만평)
·기 간 : '17.4.~'24.12
·사업비 : 2,804억원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진행 중

2-3단계(1종) : 공사 직접
·면 적 : 23만m ² (7만평)
·기 간 : '18.1.~'24.06.
·사업비 : 602억원
추진 중



※ 1단계(1종) 142만m² 2011년 완료 / 1종 : 물류·제조 시설, 2종 : 주거·상업 시설 등

현재 진행 중인 조성 사업은 항만배후단지 2단계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2-1단계(1종), 2-3단계(1종) 사업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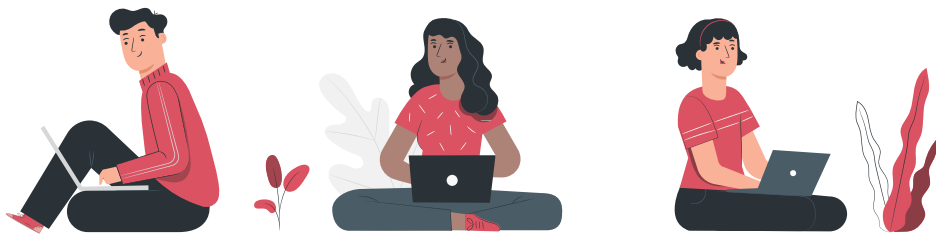
2-1단계의 경우, GS글로벌, 공사 등이 출자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무리 없이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내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2-3단계의 경우, 공사가 직접 투자하여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월에 지방공기업 평가원이 수행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였고, 본 사업 투자 건에 대해 공사 이사회 승인을 거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올해 9~10월 중 해양수산부에 공식적으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팀이 진행하는 해양 레저 산업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나현지 대리를 모셨습니다.

Q1 해양레저 업무를 맡고 계십니다. 다들 해양레저 사업 하면 마리나 항만을 말하는데요. 마리나 항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마리나는 해양관련 파생산업을 발전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로써 수변지역에 레저선박을 계류 보관하기 위한 수역시설, 레저를 즐기기 위한 숙박시설, 레스토랑 등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시설을 겸비한 복합 해양레저 문화공간입니다.



Q2 그럼 향후 공사의 해양레저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제부마리나 항만 건립사업 진행 경과

- 사업위치 :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일원
- 사업규모 : 100,689㎡ / 계류시설 300척(해상 176척, 육상 124척)
- 공사기간 : 2013.07. ~ 2020.12.
- 총사업비 : 727억원(국비 50%, 도비 50%)



먼저 우리 공사는 제부 마리나항만 관리운영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해양레저분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팀은 2020년 12월 제부마리나 항만 건설공사 준공에 대비하여, 제부마리나 항만의 관리운영과 제부마리나 항만을 기반으로 하는 해양레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부마리나 항만의 관리운영과 더불어 2021년부터 경기도와 함께 섬 해상교통수단 확충사업, 해양레저 아카데미사업, 해양레저관광 수용태세 혁신사업 등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평택항 항만 고도화 업무와
항만 통계를 맡고 계시는 최순호 주임을 모셨습니다.

Q1 평택항의 항만 통계를 전담하고 계신데요. 평택항의 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평택항은 크게 6개의 부두 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선석을 운영하고 있는 동부두가 있습니다. 동부두는 총 16개 선석으로 자동차, 컨테이너, 잡화, 철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 평택항의 대표 부두라고 할 수 있죠.

다음으로는 국제여객부두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2개 선석에서 5개 카페리 노선이 운항 중인데, 이곳을 통해 중국 산동성과 강소성을 왕래할 수 있습니다. 향후 2022년에 신규여객터미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어 평택항 여객 수송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어서 살펴볼 부두는 서부두입니다. 서부두는 총 9개 선석으로 시멘트, 양곡, 잡화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서부두 조성 사업을 통해 2040년에는 더욱 많은 양곡 및 잡화 화물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은 남양만 부두입니다. 이 곳에는 액체화물을 처리하는 돌핀부두 7개와 모래 화물을 처리하는 모래 부두 7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SK가스, 한국서부발전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국내 이용 가스의 약 4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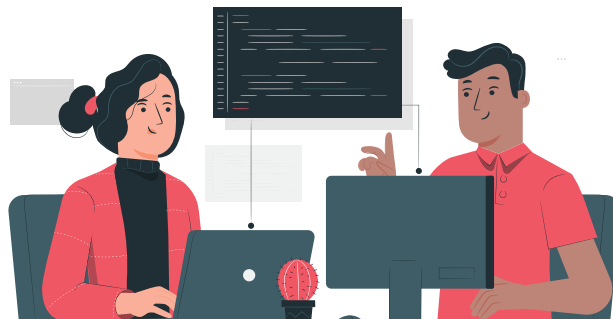
마지막으로는 살펴볼 부두는 당진에 위치한 송악부두, 고대부두입니다. 송악부두는 현대제철이 운영하고 있으며, 총 13개 선석이 있습니다. 고대부두는 동부제철과 동국제강이 운영하고 있으며 총 10개 선석이 있습니다. 이들 부두는 주로 철재와 철광석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Q2 평택항의 항만 물동량의 통계는 무엇이 있으며, 2019년 물동량 수치는 어떠한가요?

평택항은 종합적으로 여러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국제무역항입니다. 따라서 항만 물동량 통계 역시 일반 화물, 컨테이너, 자동차, 여객 등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증가율
전 체 (천톤)	112,491	115,147	113,201	-1.7%
컨테이너(천TEU)	643	690	725	5.1%
자 동 차 (천대)	1,287	1,440	1,523	5.8%
여 객 수 (천명)	482	452	624	37.8%

먼저 평택항을 대표하는 화물인 자동차 처리량은 10년 연속 전국 항만 1위에 해당하며, 2019년 기준 1,523천대를 처리하였습니다. 컨테이너 처리량은 전국 평균 이상으로 빠르게 물동량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주로 중국과 동남아 정기 항로를 통해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국 4위에 해당하며, 2019년 기준 725천 TEU를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객 수송은 2019년 10월 이후, 대륙해운이 여객 수송을 재개함에 따라 큰 폭을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3위에 해당하며, 2019년 기준 624천명의 승객이 평택항을 이용하였습니다.





1. 평택항 포트 세일즈 마케팅

1. 세부내용

국내외 포트세일즈 마케팅

선사, 수출입 포워더, 화주, 물류기업 및 항만·물류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여 물동량 유치 및 항로 신·증설 마케팅, 1:1 화물유치 간담 및 초청 마케팅, 국내외 유관기관 대상 설명회, 전시회, 박람회 참가 및 국제물류 포럼 개최 등을 통해 평택항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택항 홍보물 제작

국·영·중·베트남·태국어 팸플릿 제작, 홍보영상 (수정)제작, 평택항 홍보 PPT 제작, 평택항 방문 기념품 제작 등의 업무입니다.

미디어 홍보

평택항 지원사업 홍보, 일반인 대상 항만 인지도 제고 광고 제작 및 홍보를 위해 인쇄(중앙지, 지방지, 전문지 등)·인터넷매체 광고, 방송매체(TV·라디오) 광고, 옥외광고(G버스, 옥외 전광판 등), 영화관 스크린 광고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 2020년 상반기 주요 성과

1) 국내 홍보 마케팅

- (코로나19 극복 위한 기업지원) 道內 중소기업 및 향만 기업 지원
 - 道內 중소기업 코로나 극복 및 수출 공동 지원 위한 4개 기관 (공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道수출기업협회) MOU 체결
 - 평택항 코로나19 극복 및 안전 여름나기 캠페인 실시
- (향로 신·증설) 선사 대상 1:1 포트세일즈 실시
 - HMM(구 현대상선), SITC, 장금상선, 천경해운, 카페리선사 등
- (물동량 확대) 포워더, 화주, 물류기업 대상 마케팅
 - 포워더 : 판토스, 현대글로벌비스, 삼성전자로지텍, 월드로드항공해운 등
 - 화주 및 물류기업 : 코스트코, 한국초저온, 해오름물류 등
- (유관기관 협력) 유관기관 상호협력 강화
 - KOTRA, 한국수입협회, 한국국제물류협회, 한국식품콜드체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화성상공회의소 등
- (미디어 홍보) 향만 인지도 제고 신문, 라디오 광고 실시
- (홍보물 제작) 2020 평택항 홍보 리플렛 제작

2) 해외 홍보 마케팅

- 中 산동향만 위해항 발전대회 참가 및 연태항 포트세일즈 실시('20.1)
 - 공사 - 中 산동성향만그룹 간 상호협력 MOU 체결('19.12)에 따른 사후조치로 위해항 및 연태항과 상호협력 강화
 - 공사 - 中 산동향만 위해항그룹유한공사 MOU 체결('20.6)

3. 2020년 하반기 주요 추진 계획

1) 국내 홍보 마케팅

- (코로나19 극복) 비대면 마케팅 사업 추진
 - 온라인 플랫폼(유튜브) 활용 비대면 항만 홍보 마케팅 실시
 - 국제포럼 개최
- (항만 인지도 제고)
 - 평택항 특색(Talk Talk)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 평택항 홍보 서포터즈 운영
- (전시 마케팅)
 - 2020 G-FAIR KOREA 참가 마케팅(10.22~25)
- (미디어 홍보) 항만 인지도 제고 위한 인터넷, 옥외 광고 실시

2) 해외 홍보 마케팅

- 온라인 베트남 포트세일즈 실시 (9.23~24)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베트남 G-FAIR (호치민) 연계 실시

II. 화물유치 인센티브 사업

• 화물유치 인센티브 사업

선사, 포워더 등 평택항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신규항로 개설 및 신규 물동량 창출 유도 통한 항만 활성화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1. 세부내용

실적집계	12개월 실적(2019. 11월 ~ 2020. 10월)		
지급일정	2020. 12.(「인센티브 지급 심사 위원회」 심사를 통한 지급 확정)		
실적산정 기준	선사(볼륨 [•]) 인센티브	PORT-MIS(해양수산부 항만관리정보시스템)	
	포워더(FCL화물 ^{••}) 인센티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화물처리실적 통계 기준	
집행 기준	선사(볼륨) 인센티브	규모비	연1,000TEU 이상 화물을 처리한 선사(카페리 포함)를 대상으로 점유비율로 지급하되 배분예산 중 1개사 비중을 50% 이내로 한정
		증가분	연1,000TEU 이상 화물을 처리한 선사(카페리 포함)를 대상으로 전년 대비 순증가분에 대해 TEU당 단가 지급
	포워더(FCL) 인센티브	규모비	연1,000TEU 이상 화물을 처리한 포워더를 대상으로 점유비율과 화물처리 실적 순위를 종합 평가하여 지급하되, 배분예산 중 1개사 비중을 50% 이내로 한정
		증가분	연1,000TEU 이상 화물을 처리한 포워더를 대상으로 전년 대비 순증가분에 대해 TEU당 단가 지급
항로 신·증설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1항차 이상 정기 운항노선을 신·증설하고 지속적으로 6개월 이상 취항실적이 있으며 인센티브 지급일까지 운항 영업을 하고 있는 선사 항로 미개설로 인한 '항로 신·증설 인센티브'잔액 발생 시 선사와 포워더에게 각각 60%와 40%의 비율로 배분 지급 공동 운항 중 중도에 운항을 포기한 경우 지급기준이 충족된 선사에 항로 신·증설 당시 확정된 인센티브를 지급 		

• 볼륨인센티브(volume incentive) : 선사별 컨테이너 처리량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

•• FCL(full container load) : 한 화주의 화물이 컨테이너 1개에 만재되어 있는 대량화물

2. 2020년 상반기 주요 성과

- 2020 산동항만 위해항 발전대회 참가 (경기평택항만공사 홍보 및 인센티브 사업소개)
- 평택항 인센티브 브로슈어 제작 (사업관련 일정 및 내용소개)
- 2019년 평택항 이용 포워더 대상 인센티브 홍보활동 및 마케팅

3. 2020년 하반기 주요 추진 계획

- 2020년 평택항 인센티브 홍보 관련 DM 발송
- 2019년 인천항 이용 포워드 대상 평택항 인센티브 홍보활동 및 마케팅
- 2020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면 홍보활동 (쉬핑가제트 등)
- 2020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 개최 1차 (평택항 카페리 코로나 19 관련 상반기 인센티브 조기집행)
- 2020년 12월 인센티브 선사·포워드 지급

Ⅲ. 중소수출물류비지원사업

경기도 유일의 국제무역항인 평택항의 도내 중소기업 수출 이용 활성화 촉진과 경기도 내 중소수출기업 물류비 절감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 물류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세부내용

경기도 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제조기업 등 55개사 이상을 대상(※참여제한 기준 참조)으로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하여,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서, 수출신고필증, B/L(선하증권) 등의 제출 서류를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별 최대 5백만원(VAT포함), 수출 1건당 국제물류비의 50% 이하 한도로 해상운임, 내륙운송료, 터미널조작료(THC) 등의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제한

- 법정관리 중인 기업
-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경기도가 아닌 경우
- 불법·탈법적 행위(필리핀向쓰레기 수출 등)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본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물류지원 사업 홍보

- 수출기업 대상의 일대일 마케팅과 미디어 홍보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중소수출기업·포워더 대상의 사업홍보 메일 발송과 일대일 마케팅, 미디어 홍보, 중앙지·지방지·라디오 등 매체를 활용한 홍보, 전문지를 활용한 지원사업 기획보도, 수출입 물류정보 커뮤니티를 활용한 홍보가 있습니다.
- 유관기관의 사업 인프라를 활용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중소벤처기업청 블로그를 활용한 홍보, 경기중소벤처기업청 지원시책 홍보책자 내 지면 광고, KOTRA 신규 수출기업화 사업과 연계한 홍보, 지역별 상공회의소 정례회의 등을 활용한 지원사업 홍보 등이 있습니다.

지원사업 추진 점검(수시)

지원사업 진행 시 미비점과 개선방안 발굴(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수출물류비 지급 심사 위원회」 구성과 이를 통한 지원 신청기업 적정성 사전 검토 및 지원기업 확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요 점검내용

점검사항	세부내용
국제물류 운송 프로세스 점검	· 지원신청 서류 원·사본 대조 · 대행사업비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 점검 · 수출물동량 데이터베이스(DB) 구축 · 물류현장의 애로사항 발굴
사업수행 성과 검토	· 신규 수출 물동량의 유지 · 道 중소기업 물류비 절감 사례 발굴 · 평택항을 이용한 수출기업의 데이터베이스(DB)화
미비점/개선방안 발굴	· 지원사업 운영 중 미비점, 개선의견 발굴 · 해상·육상 물류와 관련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발굴

2. 2020년 상반기 주요 성과

- '20년 중소수출기업 물류지원 사업 참가 현황(2020.06.30.기준)
 - 총 79개사 (신규 35개사, 기존 44개사)
 - * '19년도(53개사) 대비 26개사 추가 신청(50% 증가)

- KOTRA, 한국무역협회 등 무역유관기관 사업 연계 중소기업 지원 공동 협업
- 경기중소벤처기업청 연계 중소기업 지원시책 협업 마케팅 추진
-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지원사업 활성화 홍보 마케팅 추진

3. 2020년 하반기 주요 추진 계획

- '20.07. 지원자격 및 물류비 지급 심사위원회 개최
- '20.07. ~ 12. 수출 물류비 지급

IV. 해운물류인력양성지원사업

1. 세부내용

해운·물류 청년 취업아카데미

해운·물류 분야 취업 희망 경기도 거주자 및 경기도 소재 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해운·항만·물류 교육

평택항 종사자 및 평택항 입주기관 및 업체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문 교육업체 공동운영을 통해 해운·항만·물류 종사자 역량 강화 전문 교육 사업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아카데미 운영

도내 해운·물류 특성화 고등학교(2개) 재학생 약 800명(※경기물류고등학교(평택), 경기국제통상고등학교(부천))을 대상으로 해운·물류업계 취업을 희망하는 특성화 고등학생 취업지원 특강 등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2. 2020년 상반기 주요 성과

- 해운물류 청년취업 아카데미
 -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인원 및 운영기간 축소 관련 사업 변경계획 수립
- 해운·항만·물류 교육과정
 - 평택항 종사자 대상 해운·항만·물류 교육과정 개설 관련 수요조사
 - 코로나19로 인한 해운·항만·물류 비대면(온라인) 교육과정 추진 계획 수립

3. 2020년 하반기 주요 추진 계획

- 대학생 대상 연2회 이론교육 및 현장 실무교육 운영(1차/2차 '20.8~12월 예정)
- 항만종사자 대상 해운·항만·물류 온라인 교육 운영('20.7~12월 예정)
- 해운·물류 특성화 고교 재학생 대상 찾아가는 아카데미 실시
 - *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사업 진행 여부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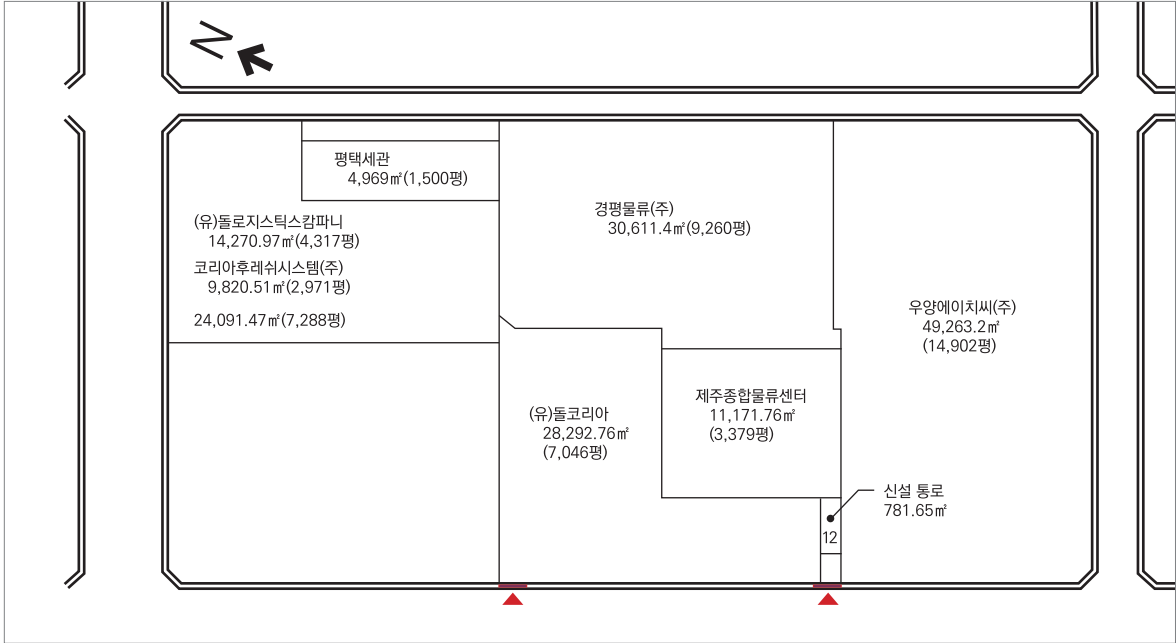
저희 시설운영팀에서는 우수탁사업 고도화 등 수익성 강화를 위한 사업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승물류부지 운영·관리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11번지에 위치한 포승물류부지는 총 146,265.4㎡(44,245평)으로 (주)경평물류 등 총 7개 업체에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주 현황

부지면적	임대 가능면적	임대현황					비고 (임대율)
		임대				미임대	
		계	외투	국내	공공		
146,265.4㎡ (44,245평)	143,389.59㎡ (43,375평)	143,389.59㎡ (43,375평)	77,995.63㎡ (23,594평)	49,263.2㎡ (14,902평)	16,130.76㎡ (4,880평)	-	100%
						-	100%



항만배후단지 1단계(자유무역지역) 운영·관리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희곡리 일원에 위치한 항만배후단지 1단계는 총 규모 1,420천㎡으로 현재 15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입주 현황



블럭	업체명	면적(㎡)	주요사업
2B	(주)엠에스로지스틱	54,597.3	공동 집배송센터 운영(석재, 철강재 가공 등)
4B	칼트로지스평택(주)	65,979.0	공동물류센터 운영(자동차부품, 피혁 등 조립·가공·포장) 및 수입자동차 PDI 센터
5B	(주)피엘에스	153,167.7	수입자동차 PDI 센터(혼다, 닛산, 볼보, 포르쉐)운영 및 자동차 수입 및 핸들 개조 자동차부품 등의 조립·가공
12B		18,328.5	
7B	(주)신화로지스	99,437.3	국제배송센터 및 수입자동차 PDI (BMW 등)
6B		16,290.8	
8B	(주)유성티엔에스	16,496.0	철강제품의 가공 및 보관, 운송 창고 운영
8B"	우련평택물류(주)	37,304.4	국제물류센터(소금, 규사, 우드펠릿 가공)
9B'	(주)베어로지평택	62,391.3	수입자동차PDI(볼보), 자동차 부품조립
10B	(주)케이제이로지텍	17,985.5	농산물 수입 및 가공
10B'	(주)화인통상	17,988.0	건설자재, 식자재 보관·공급
11B	(주)평택해운로지스	36,231.9	철강제품, 냉장·냉동 보관운송, 자동차 보관 물류 수입자동차PDI
3B	영진로지스틱스(주)	124,960.4	수입자동차PDI(아우디, 폭스바겐), 자동차 부품조립
1B		18,613.5	
7B'	쏘나브이피씨코리아(주)	59,377.4	수입자동차PDI(크라이슬러, 재규어 랜드로버), 중고자동차 수출
13B		14,474.6	
8B'	(주)선라이즈에프엔티	36,171.3	농산물(고추류, 마늘 등) 수입 및 가공
9B	(주)피에이치코리아	92,450.5	전자 상거래, 3PL 등 운송, 복합운송주선, 창고 보관 운영, 수입자동차PDI
9B"	(주)신대동국제물류	59,996.2	LCL화물, 반도체 설비, 전력량계 기자재 보관 및 수출·입, 수입자동차PDI
	계(15개사)	1,002,241.6	외투 9개, 국내 6개 / PDI 9개, 일반 6개

항만배후단지 1단계(자유무역지역)과 관련하여 시설운영팀의 주요업무는 입주기업의 실적평가 등의 지원과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녹지 등), 하수처리 및 보안통제시설 관리,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투자비 회수, 정산 관리 등이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에 대하여 입주기업 소독·방역 실시('20.01.~)를 진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방역실태에 대하여 해수부-道-공사 입주기업 관리·운영실태 합동점검('20.06.04.)을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극복 위한 입주기업 임대료 감면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입주기업 3개사에 대하여 사업실적평가('20.06.10.)를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는 입주기업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해수부-道-공사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양수산부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 25조에 따른 현장방문 등 지도점검)와 하반기 입주기업 1개사에 대한 사업실적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항만배후지(Hinterland)란?**

운송수단에 의해 항만과 연결되고 항만을 통해 화물의 도착 또는 선적하기 위해 개발된 육성구역으로 지역 내 여러 활동 장소를 항만과 연계시키는 기능을 하는 지역

평택항 마린센터 운영·관리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번지에 위치한 마린센터는 2009년에 완공되어 지하1층/지상15층, 연면적 15,365㎡(4,656평) 규모로 평택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공공기관 및 다양한 기업 총 45개의 업체('20.07.01.기준)가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전년대비 임대율 12.2%(78.01% ⇒ 90.21%)를 향상시켰으며, 마린센터 건축물 정밀안전점검('20.05)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1회이상/일 방역 실시, 감염예방 홍보, 열화상카메라, 체온계비치 및 기록관리와 코로나19 피해 입주기업 34개사에 대하여 임대료 감면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우수기관 선정('18년 실적, 환경부 장관)과 관련하여 LED 조명기구 교체(현재 교체율 100%, 절감효과 10백만원/년)와 입주기업 편의시설 확충(전기자동차 충전소, 실외 흡연부스 설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는 현재 마린센터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입주기업의 관리비 약 7% 절감을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목표 : 10%) 더불어 안전교육훈련(2회) 및 월1회 시설안전점검 실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평택항 홍보관 운영·관리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 98, 신당공원 내 위치해 있는 평택항 홍보관은 2004년에 개관하여 지상 3층, 면적 4,030㎡(1,219평), 연면적 2,335㎡(706평)의 규모이며, 주요시설은 전시관, 영상실, 투자상담실, 홍보코너 등이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예방차원에서 휴관(02.04.~)되어 있으며, 시설 정상운영대비하여 경기도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직업체험 프로그램 기획, 道교육청 8대 분야 체험학습 프로그램 컨설팅 참여, 해양안전·안보 체험과 교육이 결합된 가상현실(VR) 콘텐츠 도입추진, 유희시설을 활용한 지원시설(북카페 등) 확충 계획수립(평택시 사회적일자리 사업 '위드커피' 입점 유치 협의 중) 등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및 시설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인터뷰 (시설운영팀 서동현 주임)

Q 평택항 홍보관은 어떤곳인가요?

평택항 홍보관은 평택항의 이해와 관심도를 높여 평택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홍보시설물입니다. 평택항 홍보관에서 평택항의 해운, 항만, 물류 관련 산업의 발전현황을 관람하고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해 평택항 투자자유치에 기여하며 학생들의 항만 진로체험으로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Q 평택항 홍보관 관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0명 이상의 단체관람객 방문시 사전 예약을 하시면 홍보관 도슨트의 안내를 받을수 있으며, 예약은 홍보관 (031-628-5663)을 통해 가능합니다.

Q 평택항 홍보관에는 어떤시설들이 있나요?

제1전시관에서는 평택항의 종합계획을 알 수 있는 전시시설물이 있으며, 제2전시관에서는 컨테이너존, 트리아트존, 게임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체관람객의 경우 시네마홀에서 무료로 영화를 관람할수 있으며, 전망대에서는 평택항 전체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Q 홍보관에는 프로그램이 다양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안보체험 프로그램으로 홍보관-항만안내선-해군2함대 또는 평택해양경찰서의 코스관람으로 안보의식을 확립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을 위한 안보견학이 가능하고 항만 인프라 체험으로는 홍보관-항만안내선-한전 또는 서평택 가스안전공사를 방문하여 에너지의 발전원리와 신에너지산업분야를 견학할 수 있습니다.

평택항 항만안내선 운영·관리

평택항 항만안내선은 국가 또는 지자체등 국내·외 투자유치 관련자, 해운·항만·물류관련 업체 및 경제 관련 단체, 도내 수출입 기업 등을 대상으로 평택항 해운·항만 부두를 둘러보며 평택항의 모습을 직접 보며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운항코스 (※ 소요시간 : 약60분)



관리부두 → 동부두(신컨테이너 터미널) → 여객터미널 부두 → 철재 부두 → 잡화부두 → 컨테이너 터미널 부두 → 자동차 부두 → 2함대(회항) → 서부두(시멘트 부두) → 잡화부두 → 양곡부두



인터뷰 (시설운영팀 안선미 주임)

Q 평택항 항만안내선은 어떤건가요?

평택항 항만안내선은 평택항을 현장감 있게 전달하기 위한 여객선에 승선하여 평택항 해운·항만 부두를 둘러보며 물류 중심기지의 평택항의 모습을 도슨트의 설명을 들으며 운항코스를 투어하는 체험학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Q 평택항 항만안내선의 운항코스는 어떻게 되나요?

평택항의 동부두, 서부두, 현대제철부두, 고대부두 와 국제여객부두 등 평택항 전체 부두의 개발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Q 평택항 항만안내선을 관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80명까지 단체관람객이 승선 최소 10일전 사전 예약을 하시면 승선이 가능하며, 홍보관(031-628-5663)을 통해 예약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는 평택항! 경기평택항만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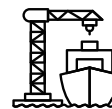
경기도 교통국 택시교통과장
남길우

경기도는 1986년 이후 평택항 태동기의 개발 및 지원에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해 왔으며 이외에도 2001년~2011년에 걸쳐 평택항 홍보관, 평택항 마린센터, 항만 배후단지 조성, 포승물류부지 조성에 직접 투자를 추진하였다.

경기도의 적극적 투자는 2012년 평택항 총물동량 1억톤 돌파, 2013년 평택항 자동차 수출입 1천만대 달성, 2019년 자동차 수출입 10년 연속 전국 1위 등 다양한 성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평택항의 급성장에는 2001년 설립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역할이 주효했으며, 지방공기업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뛰어난 역량을 토대로 국가항만공사(국가PA)인 부산항, 인천항을 뛰어넘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평택항은 우리나라 인구 60%와 국내 총생산 63%를 점유하고 있다. 인근에는 495개의 국가·지방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어 중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교역에 유리하며 물동량 창출에 기여도가 매우 높다.

또한 경기도 경제에 있어서 반도체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수출입이 집중되어 있어 지난해 기준 자동차 수출입 10년 연속 전국 1위, 컨테이너 물동량 전국 4위를 달성했다.

그러나 최근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국제여객수송이 중단되고 화물 수송이 감소하여 선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경기도 내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상운송을 동력으로 한 항만활성화와 국가경쟁력 확보에 비상이 걸려 평택항과 경기평택항만공사의 미래에 넘어야 할 장벽이 생긴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기도·경기평택항만공사는 기존 베트남, 태국 노선 외 인도 등 신규항로 개설을 통해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시장 마케

팅 활동을 강화해 항만 물동량을 더욱 확대한다.

스마트 항만건설, 컨테이너선 대형화 및 물류통합 등에 따른 국제 항만간 경쟁환경의 심화에도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세계 5대 무역국가 진입이라는 우리나라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평택시 등의 정부기관·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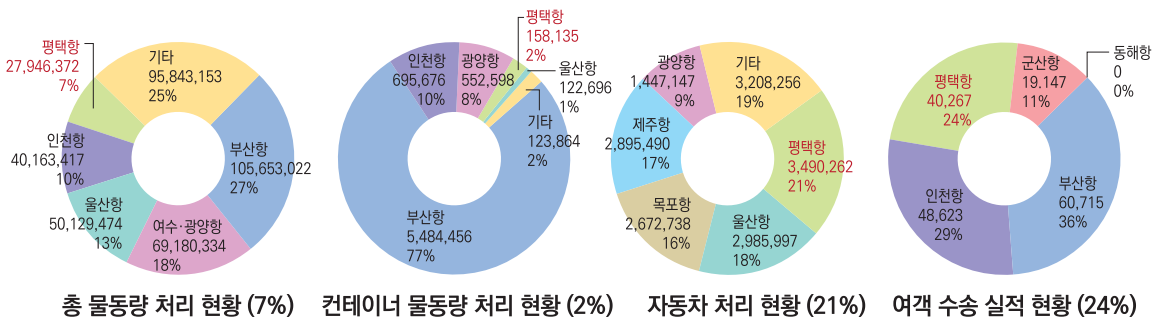
이를 위해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항만·해운·물류에 대한 국가PA 수준으로의 전문성 강화, 항만 배후단지 조성사업 추진, 제부마리나 관리 및 신규 투자사업 추진을 통해 환황해권 글로벌 복합허브항만 구축을 선도하는 항만운영 전문기업으로 우뚝 서야 할 것이다.

경기평택항만공사가 21세기 대한민국 물류의 새로운 중심, 동북아 물류의 중심인 평택항에서 희망의 바다를 열어주기를 바란다.

‘항만이 알고 싶다’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경기도의 유일한 무역항 평택항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한다. 평택항은 2004년 개항 이후 환황해권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과의 교역확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 발 맞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는 평택항. 평택항의 성장세를 객관적인 항만통계 수치를 통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다음은 2020년 1분기 평택항 물동량 처리량이다. 총 물동량, 컨테이너, 자동차 물동량 순으로 그 현황을 알아보자. 평택항은 각 분야에서 5위,4위,1위를 차지했다. 총 물동량 처리 순위는 5위를 차지하였으며 27,946천 톤을 기록하였다. 전국 항만별 총 물동량 처리순위는 부산항, 광양항, 울산항, 인천항, 평택항 순이다. 그리고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는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평택항, 울산항 순으로 평택항은 4위를 차지했으며 그 처리량은 158천TEU를 기록하였다. 또 전국 자동차 총 물동량 처리순위는 평택항, 울산항, 목포항, 제주항, 광양항 순으로 평택항은 꾸준히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그 처리량은 317천대이다.

전국 주요항만 대비 비교(2020년 1분기)



평택항 물동량 처리량 요약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분기	전년동기 누계대비	비고 (2020순위)
전체(천톤)	112,948	112,491	115,147	113,201	27,946	5.2%	전국 5위
컨테이너(천TEU)	623	643	690	725	158	-0.6%	전국 4위
자동차(천대)	1,337	1,287	1,440	1,523	317	-7.0%	전국 1위
여객수(천명)	435	482	452	624	40	-70.6%	전국 3위

*자료출처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운영통계

1분기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분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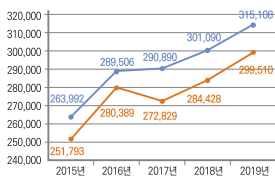
2020년 1분기는 코로나 등 해운·물류 변화 등 불확실성이 상당수 존재하는 시기였다. 그렇다면 평택항 앞으로 1분기 컨테이너 처리량은 어떻게 변화하였을까?

2020년 1월 춘절 연휴로 인해 춘절 연휴 전후로 카페리 화물 부두(PNCT, 국제여객터미널)의 물동량 감소 및 항차 결항율이 증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2020년 2월 코로나 사태의 확산으로 인해 중국, 카페리 선사 화물 물동량이 감소세를 보였으나, 동남아, 신규 개설한 항로(서비스명 : BTS) 안정화로 인한 물동량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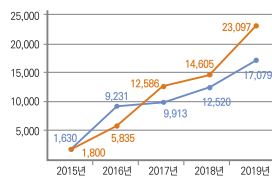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타항만에 비해 컨테이너 물동량이 3.3% 소폭 감소하였으나 대체적으로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3월은 전년 물동량 비교하여 1.4%를 기록하며 보합세를 유지하였다. 향후 코로나 사태의 확산 등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평택항은 중국과의 교역비중이 높으며, 중국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 부양책을 강하게 진행하고 있는 만큼, 컨테이너 물동량은 다른 항만과 비교하여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는 분명하다.

국가별 처리 비중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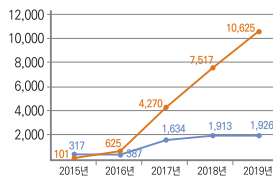
평택항은 타 거점항만에 비해 개항이 늦은 신설 항만이지만, 수도권 중부권의 거점항만으로 눈부신 발전을 기록하는 중이다. 2000년 12월 정기 컨테이너선이 처음으로 취항하면서 서해의 대표적인 국제 무역항으로 성장할 계기를 마련하였는데, 최근 5년간 컨테이너 입출항 현황을 파악하면서 교류하는 주요 국가에 대해서도 분석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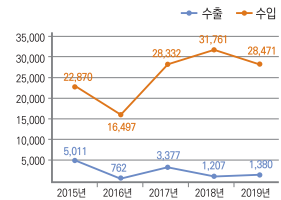
중국 컨테이너 수출입 현황 (84.8%)



베트남 컨테이너 수출입 현황 (5.5%)



태국 컨테이너 수출입 현황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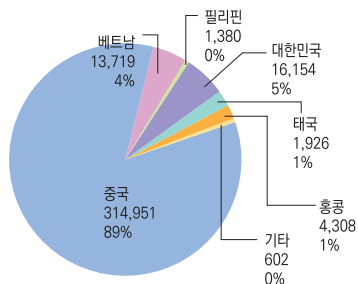
필리핀 컨테이너 수출입 현황 (4.1%)

* 자료 출처 : 해양수산부 통합 PORT-M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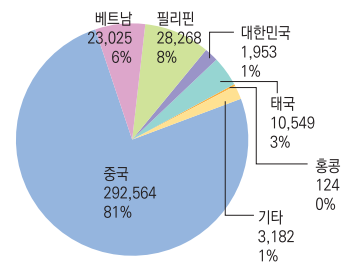
중국은 평택항 컨테이너 수출입 1위 국가로 농산품을 수입하고 전자제품 및 차량을 수출하고 있다. 동남아 국가는 평택항 컨테이너 비중이 점차 상승 중에 있다. 아직은 수입 비중이 높는데, 그 항목으로는 주로 수산물, 과일, 삼성전자 가전제품을 역수입하고 있다. 현재 그 비중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평택항은 수도권 남부지역의 주요 거점항만으로 그 성장세가 전국에서 가장 빠른 항만 중에 하나이다. 또한 국내 기업의 절반 이상이 소재하고 있으며, 풍부한 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중부권을 배후세력권으로 두고 있고 거대 경제시장인 중국 및 아세안 국가들과의 거리가 가장 짧아서 물류 입지여건 상으로 유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평택항은 중국과 동남아 교류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다. 수출입의 84%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었고, 그 다음이 5.5%를 차지한 베트남, 필리핀, 태국 순이다.

* 자료 출처 : 해양수산부 통합 PORT-MIS

평택항 주요 국가별 컨테이너 수출입 국가 비율



평택항 수출 현황(2019년 12월 누계, 353,040TEU 45.5%)



평택항 수입 현황(2019년 12월 누계, 359,665TEU 50.5%)

* 자료 출처 : 해양수산부 통합 PORT-MIS / 환적 화물 제외

마린센터 입주기업: (주)정방

(주)정방은 충남 당진시 송악면 현대제철(주) 맞은 편에 본사 사옥을 두고, 1998년 창사 이래 항만물류의 주요 업무인 수출화물 선박내에서 화물 고정작업(이하 고박(LASHING))과 검수(TALLY) 서비스의 한 길만을 걸으며, 끊임없는 개선과 노력을 통해 평택당진항에서 화주 선사 등 고객에게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는 전문업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자부합니다.

우선 고박은 현대제철, KG동부제철 등의 철제품을 위주로 연간 3~4백만톤 이상을 20여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투철한 기업가 정신을 무장한 경영진뿐만 아니라 20년 이상 업계 최고 수준의 업무 노하우와 20여명의 숙련된 인력과 경쟁력 있는 장비, 도구를 확보하고 있어, 고객의 어떠한 요구도 신속 정확히 해결하여 화주나 선사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수출 대형 프로젝트 화물 선적 시에도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는 등 모든 화물에 대한 최고의 경험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검수업무 역시 우수한 검수사를 보유하고, 2012년부터는 화물 라벨 리더기(스캐닝)



을 활용한 검수시스템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검수업무의 최고의 덕목인 오류 제로화를 구현하고,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형 국적선사인 글로벌비스, 팬오션, SK해운, 현대상선 뿐만 아니라 유수의 국제 선사와의 20년이 넘게 거래 관계를 지속하게 되어 연간 3~4백만톤의 검수 실적을 꾸준히 유지하는 명실공히 평택당진항의 최고의 업체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최근 코로나19로 중장기적으로 경영의 애로가 예상되지만, 직원들의 이탈은 결코 허락하지 않겠다는 경영층의 굳은 의지를 신뢰하고 IMF 등 수차례의 위기를 오투기처럼 극복했듯이 전 직원들의 혼연일체로 단결된 힘과 고박, 검수의 유기적인 융합으로 반드시 이겨낼 것을 다짐합니다.

아울러, 평택당진항의 모든 업체도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고 현명하게 잘 헤쳐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대표이사 신현덕 / 신규식

기업인 인터뷰

일조국제훼리 대표이사 안경용



일조국제훼리 대표이사
안경용

Q 본인소개

평택 항만 가족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조국제훼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안경용입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의 발전과 사보 솔개나루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응원합니다.

저는 종합물류기업인 (주)동방에 1990년에 입사하여 2010년 까지 항만 하역운송 관련 업무를 하다가 2010년도에 주식회사 동방의 자회사인 일조국제훼리 법인을 설립하여 지점장으로 근무하였고 2018년도 11월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Q 다니고 있는 회사 소개

일조국제훼리는 산동성 최남단에 있는 일조항과 평택항을 주 3회 운항하는 카페리 회사로 모선인 르자오 오리엔트호는 2007년 이탈리아에서 건조된 선박으로 여객 420명, 화물 360TEU를 선적할수 있으며 2017년 이래 3년 연속 풀컨테이너 기준 화물량 50,000TEU를 초과하였으며 2019년 한중 카페리항로중 화물량 1위, 여객승선율 1위를 차지하며 최고의 카페



리 회사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Q 평택항 이용 장, 단점

평택항은 지리적으로 중국 산둥성과 최단거리에 위치한 대중국 교역의 중심항만이며 수도권과 중부권 수,출입 거점항만으로서 수도권 물류의 중심으로 입항대기나 지체없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화물을 처리할수있는 천해의 요충 항만입니다.

특히 카페리 5개선사는 2019년 기준 화물 약 200,000TEU, 여객 약 630,000명을 원활하게 수송하여 평택항 위상제고에 큰 몫을 하였고 이는 중국과 가장 인접해 있어 안전하면서도 적기에 운송하고 기업의 물류비를 절감하여 원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때문이며 지금은 비록 부두나 터미널 상황이 국제여객부두로서의 위상에 못 미치지만 2023년이면 준공할 신국제여객터미널은 이용자 입장에서 신축되어 새로운 평택항의 랜드마크가 되길 희망합니다.

Q 2020년 회사의 비전과 성과는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일조국제웨리는 안전운항과 정확한 운항스케줄 준수를 토대로 하여 유럽 철송화물의 증가 및 안정화, 일조항을 거쳐 중앙아시아 및

베트남으로 향하는 철송루트의 추가개발을 통한 물류비즈니스 혁신을 추구하는 최고의 명품 카페리 회사로 화물 55,000TEU, 여객 110,000명 수송하고 창립 10주년을 맞아 미래 10년을 준비하는 기반구축의 해로 만들어 나아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구정 이후 현재까지 여객 승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세계 경기침체로 화물량 감소가 이어지는 추세로 대외적인 영업전략은 차후로 미루고 코로나 상황에 맞는 경영안정, 조직효율성 제고 등 내부적인 경영안정화 노력에 최선을 다하여 코로나 19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우선 일 것 같습니다.

Q 회사의 경영방침은

“신뢰를 주는 경영, 사랑을 받는 경영, 꿈을 만들어가는 경영” 모기업인 (주)동방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정시운항, 안전운항으로 고객에게 신뢰를 주고, 고객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최고의 서비스를 추진하는 주체인 직원들을 중시하며 기업과 개인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경영을 추구하여 “일하고 싶은 회사, 신바람나는 회사”를 만들 것입니다.

Q 영업방식은 어떤 것이며 앞으로의 시대에 어떤 영업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영업에는 정도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0년간의 직장생활을 돌이켜보면 영업보다는 관리업무를 주로 했던 저는 일조국체제리에 근무하면서 여객 및 화물영업을 접하였지만 외부 고객이던 내부 고객이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지사지의 정신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의 내 입장이나, 내 이익 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더 생각하고 상식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합리적이었고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 오래도록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하나 동종사간 치열한 과당경쟁속에서 한중합작 카페리 사업을 하면서 영업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단순히 우리 선박에 화물을 싣기위하여 운임을 인하는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지(송화인)에서 도착지(수화인)까지의 안전하고 적기에 도착할수 있도록 한중간 포워드 및 선사가 하나되어 운송루트를 개발하고 TEST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물류비를 절감하는 즉 고객과 함께 고객의 요구를 공유하고

물류체계를 정립하고 물류파트너가 되는것이 앞으로의 영업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이윤추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사업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내는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 이야기나 뉴스를 통하여 사업을 하다가 잘못되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이 “욕심”때문입니다.
이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이고 글로벌화된 사회로 혼자만 살수없는 사회이므로 행복한, 성공한 삶을 위해서는 “과유불급의 정도경영”이 꼭 필요한 이유 입니다.

Q 회사와 평택항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저희 회사는 평택-일조간의 인적 물적자원의 수송을 기본으로 평택항과 일조항을 거쳐 중국 철도망과 연계하여 유럽, 중앙아시아, 동남아를 왕래하는 새로운 물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수출입 물동량을 컨테이너선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정확한 운행스케줄 준수로 고객은 물론 평택항과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은 중국과 최단거리에 위치한 대중국교역의 중심항만으로서 평택항 중심의 정기선 항로 확충, 카페리 해운 기능 선진화, 항만시설의 수요 맞춤형 개발 및 현대화로 환황해권 중심항만으로 위상을 정립하고 산업클러스터 기능강화 및 배후단지 기능 활성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항만 육성한다면 국제물류, 유통, 제조, 도시 친화적 현대항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Q 공사에 바라는 점

코로나 19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있고 스스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생각되며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선도적으로 화물유치 인센티브 정책 확대, 수출입 물류기업 지원 확대, 항만물류관련 정보 제공등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오며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물류 중심의 국제무역항으로서 차별화된 인프라 구축과 마케팅으로 평택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물류의 중심기지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여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현대 직장인들이 쉽게 걸리는 질병 BEST 5

한 뉴스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일주일에 평균 49시간55분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고 작은 스트레스와 피로는 흔한 일상이다. 소위 '직장인 병'이라고 불리는 고질병들은 대부분 직장인들에게 나타나는 흔한 질환이며, 그만큼 대수롭지 않게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이러한 만성질환이 장기간 지속되면 자칫 심각한 병으로 발전할 수 있어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 직장인에게 많이 발병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알아보자.

1. 풀리지 않는 피로 '만성피로'

아무리 휴식을 취해도 늘 피곤하고 이유 없이 무기력한 증상이 계속된다면 만성피로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한다. 수족냉증, 식은땀, 두통, 집중력 저하, 불안감, 근육통 등의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우선 스마트 기기 사용을 줄이고 뇌를 쉬게 하자. 만성피로 증후군의



치료를 위해 저지방, 고단백 음식과 섬유질이 풍부한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되, 포화지방의 섭취는 줄인다. 카페인, 니코틴, 알코올, 설탕, 아스파탐 등은 피로와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섭취를 제한한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을 포함한 점진적인 유산소성 운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 자주 충혈된 눈 '안구건조증'

장시간 컴퓨터 작업과 스마트폰 사용으로 안구건조증을 호소하는 직장인이 많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장시간 보며 집중하게 되면 눈의 깜박임이 줄어들면서 눈물이 증발돼 건조함을 쉽게 느끼고 초점을 정확히 맞추지 못하는 시력저하 증상이 나타난다. 안구건조증의 주요 증상으로는 눈이 뻑뻑하고, 자주 충혈되며, 눈이 피곤하면 눈곱이 낀다. 안구건조증을 방치하면 각막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겨 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안구건조증을 예방하기 위해선 물을 잘 챙겨 마시고, 수시로 인공눈물을 점안, 눈을 자주 깜박여준다. 아스타잔틴, 루테인, 오메가3 등 눈에 좋은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3. 뇌의 각성 유지 '불면증'



불면증은 수면을 유도하는 신경전달물질의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뇌가 과하게 각성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직장인들이 과도한 업무,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집중력과 판단력에 영향을 주면서 건망증을 유발함은 물론, 정신 세포에 자극을 주면서 불면증으로 이어진다. 우울증과 두통, 짜증과 예민함을 동반하는 불면증이 일시적이 아닌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만성적 불면증으로 봐야 한다. 불면증 예방을 위해 간단한 취미생활이나 운동, 명상 등의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는 활동을 추천한다.

4. 어깨 결림 '거북목 증후군'

'거북목 증후군'은 잘못된 자세 때문에 거북이처럼 목이 앞으로 구부러지는 증상을 말한다. 목뼈에 하중이 생겨 목덜미와 어깨가 결리고 통증을 유발하는 거북목 증후군은 오랜 시간 사무실에서 생활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나타나는 고질병 중 하나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거북목은 자가 진단이 가능한데, 바르게 서서 귀의 중간 부



분을 일직선으로 그었을 때 어깨 중간이 같은 수직선상에 있으면 올바른 자세이다. 중간보다 앞으로 2.5cm 이상 나와 있다면 거북목이 진행 중이다. 거북목 증후군을 예방하려면 컴퓨터 모니터 높이를 눈높이에 맞추고 걸을 때 뒷짐을 지고 걸으며, 30분에 한 번 정도 스트레칭을 해 목의 근육을 풀어준다.

5. 소화불량, 속쓰림 '위염'

바쁜 업무로 인해 주로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여기에 업무 스트레스까지 받는 직장인들은 특히 위염 환자가 많다. 만성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속 쓰림 증상이나 명치 통증, 복부 팽만감 등이 있다면 위염을 의심해 봐야 한다. 위염은 위 점막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하며 급성위염과 만성위염으로 구분된다. 스트레스나 업무 습관뿐만 아니라 맵고 짠 음식, 인스턴트식품 등 잘못된 식습관, 과음, 흡연 등이 원인일 수 있다. 스트레스성 위염은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치료법이다.



食道

樂

평택항은 무역항이기 때문에 고기잡이가 금지되어 있으며 다른 바다처럼 횃집촌이나 조개구이 등을 보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평택항에서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이 팍 찬 통통한 꽃게를 맛보게 해주는 맛집이 하나 있다. 짠 바닷바람과 뿔 속을 오가며 통통하게 살이 오른 꽃게들이 간장 계장, 꽃게탕 등으로 올라오는 곳은 바로 '서해 꽃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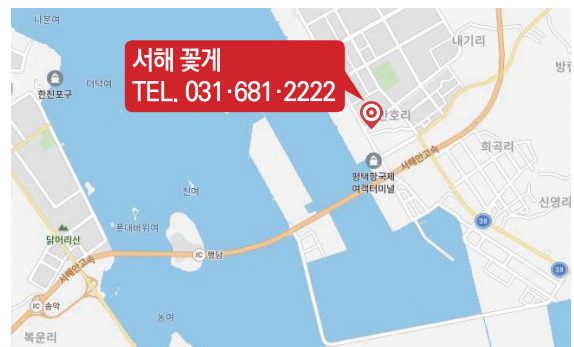
바다 근처에 가면 으레 해산물을 찾기 마련이다. 때문에 평택항에 놀러온 사람들도 종종 “여기 횡집은 없습니까”라며 음식점 추천을 부탁한다.

평택항은 무역항이기 때문에 고기잡이가 금지되어 있으며 다른 바다처럼 횡집촌이나 조개구이 등을 보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평택항에서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이 짝찬 통통한 꽃게를 맛있게 해주는 맛집이 하나 있다.

짠 바닷바람과 뽕 속을 오가며 통통하게 살이 오른 꽃게들이 간장 계장, 꽃게탕 등으로 올라오는 곳은 바로 ‘서해꽃게’다. 꼭 초가을이 아니어도 입 안 가득 부드럽게 ‘씹는 맛’이 있는 실한 꽃게들이 상에 오른다.

‘서해꽃게’의 간장계장은 짜지 않게 적당히 스며든 간장 맛으로 밥 없이 게살만 꺼내 먹어도 맛이 좋다. 붉게 올라온 알들과 빨강, 초록 고추까지 올라가 그야말로 알록달록한 색깔로 보는 맛도 일품이다. 게살을 누르면 오동통한 꽃게살과 알이 쏟아져 나와 흰 밥에 올려먹으면 ‘우리나라 밥도둑 1호’의 의미가 허끝으로 다가온다.

꽃게 이외에도 연중



무휴 영양 굴밥도 접할 수 있다. 굴은 비타민과 나이아신 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효능까지 있다. 꽃게와 마찬가지로 타우린 함유로 불안감을 진정시키고 피로 회복에 좋아 일상에 지친 직장인들에게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꼽힌다.

계장정식은 1인분에 4만원이며 굴밥 정식은 1만3천원이다. 봄, 가을에는 꽃게찜, 겨울에는 굴탕으로 시즌 메뉴도 만날 수 있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다. 좌석은 50인이 수용 가능하고 단체석이 완비되어 있어 회식 등으로 이용할 때에는 사전에 예약하는 것을 추천한다.

글, 정리 김혜정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로 우리는 뉴노멀(new normal)시대, 뉴타입(new type) 인재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생각의 프레임을 재설정하기 위해 다양한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혼란의 틈 속에 새로운 질서를 생각해볼 수 있게끔 할 영화와 책을 소개한다.



컨테이션

최근 ‘코로나 영화’라고 불리는 영화가 있다. 홍콩으로 출장을 다녀온 기네스 팰트로가 며칠 뒤 발작을 일으켰고 끝내 사망하는 사건으로 시작한다. 남편인 맷 데이먼이 원인을 알아내려 고군분투하지만 아들까지 갑자기 죽어버리면서 전염병은 그렇게 급작스럽게 퍼져나가기 시작한다. 미국 질병 통제 센터에서는 박사 케이트 윈슬렉과 세계보건기구 박사 마리아 꼬띠아르를 보내 최초 발병 경로를 조사시키며 긴장감을 높인다. 특히 영화 속 감염 매개체가 야생 박쥐의 변을 먹고 자란 돼지를 맨손으로 요리하면서 요리사에게 전염되었다는 설정은 우한 시장, 박쥐 요리를 지목하는 코로나19 사태와 닮아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현실적인 전염병 사태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전개가 다큐멘터리처럼 흘러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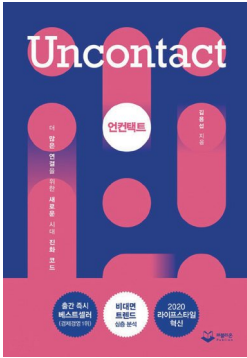
감기

국내 전염병 영화로는 ‘감기’가 있다. 호흡기로 감염되며 유례없는 최악의 바이러스라는 점에서 코로나19와 비교되고 있다. 국가 재난사태에 도시 폐쇄라는 상황이 공포를 극대화한다. 그러나 의사인 수애 딸의 항체로 사태가 빠르게 종결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점은 현실과 많이 달라 다소 허망한 느낌을 준다. 극적인 시나리오 전개 이외에는 쪽대본을 이어 붙여 만든 것 같은 엉성함과 마지막 휴머니즘과 가족애로 정점을 찍는 것도 호불호가 갈리는 장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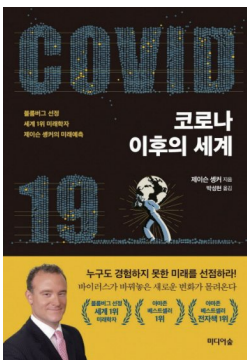
코로나

코로나19 자체를 캐나다에서 영화화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펼쳐지는 해프닝으로 코로나19에서 동양인 혐오로 번지는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동양인들은 국적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동양인 혐오에 노출돼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영화에는 일곱 명의 이웃들이 승강기에 갇히게 됐는데 이들은 중국계 여성을 코로나19 전파자로 의심한다. 모스타파 케시바리 감독은 “중국에서 온 바이러스로 알려졌다지만 한 국가만의 문제로 볼 수 없으며 이제 인류가 한 마음으로 바이러스를 물리쳐야 한다”고 전달했다. 영화는 제작을 모두 마친 상태며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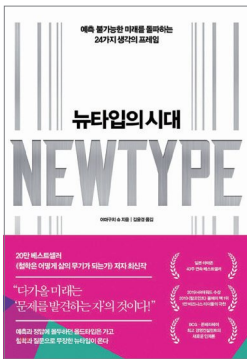
언컨택트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바야흐로 비대면, 비접촉의 시대가 이어지고 있다. 개인주의적 문화가 부상하고 있는 때에 언컨택트는 느슨한 연대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혼자 사는 시대, 즉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회피하고자 하는 욕망과 언컨택트의 욕망이 맞닿으면서 온라인에서의 연결과 교류의 발전 가능성까지 생각해볼 수 있다. 사회적 관계는 유지하되 교류와 연결 방식을 고민하고 갑작스런 새로운 방식에서 생기는 문제와 방안도 빠르게 구상해야 한다. 책은 앞으로의 삶의 변화와 그에 따른 언컨택트 마케팅 방식의 해법 역시 제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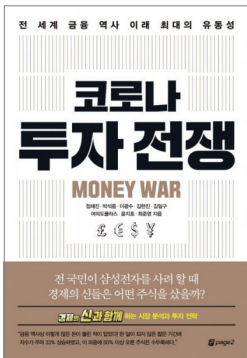
코로나 이후의 세계

코로나로 전 세계가 유례없는 충격을 받은 가운데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잡을 것인가가 대두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촉망받는 금융 미래학자 제이슨 생커는 놀라운 통찰력으로 미래를 제시한다. 가장 타격이 심한 관광 산업과 관광 지역의 회복부터 재택근무의 미래까지 논의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많은 것이 전환 조치 되면서 IT 기술, 특히 에드테크에 대한 투자를 예견한다. 미래에 대한 대비책을 읽는다면 암울하고 우울한 미래보다 펜데믹으로 인한 반면교사가 될 상황을 예견할 수 있다. 책은 코로나19 이후에도 미래가 있다고 설명한다.



뉴타입의 시대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로 국내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저자 야마구치 슈의 신작으로 핸데믹 이후 대전환의 미래를 돌파하는 24가지 생각의 프레임을 제시한다. 특히 성실하고 논리적인 엘리트보다 자신만의 철학과 직감에 따라 왕성한 호기심으로 문제를 발견해내는 혁신가가 뉴타입의 인재라고 설파한다. 뉴타입의 사고와 행동, 유연하지만 강력한 생존 전략에 대해 저자는 자신의 역할부터 뉴조직의 역할까지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새로운 매뉴얼을 살펴볼 것을 추천한다.



코로나 투자 전쟁

코로나는 금융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역사상 많은 돈이 한꺼번에 풀리며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가 도래한 것. 어느때보다 투자에 대한 관심은 높고 예측은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1918년 스페인독감은 불과 2년 만에 5억 명을 감염시키고 무려 1억 명의 사망자를 낳았다. 경제 활동은 약 1년간 극도로 위축되기도 했다. ‘코로나 투자 전쟁’ 경제 전문가들이 대화를 하는 팟캐스트의 이야기를 엮었다. 새로운 부의 창출을 돌파하며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변화의 파도 위에 올라탈 서퍼가 될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



내가 이불이 되어줄게

I'll be your blanket.

60x72, 2020, 손지에 분채(족자 표구 60x125)

젊은 청년이 그리는 동화



장건우

2014년 2월 광주교육대학교 초등미술교육전공 졸업
2017년 2월 동대학원 초등미술교육심화 졸업
2018년 제7회 대한민국전통채색화공모대전 민화부문 특선
2018년 제31회 광주광역시미술대전 민화부문 입선
2018년 제19회 대한민국정수미술대전 민화부문 장려상 수상
2019년 제8회 대한민국전통채색화공모대전 민화부문 특선
2019년 제32회 광주광역시미술대전 한국화부문 입선, 민화부문 입선
2019년 대한민국 한국화·서예·문인화 특장전 한국화부문 입선
2019년 제20회 대한민국정수미술대전 민화부문 장려상, 한국화부문 특선
2020년 제9회 대한민국전통채색화공모대전 민화부문 특선
2020년 제33회 광주광역시미술대전 문인화 특선, 민화 입선, 한국화 입선

작가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주중에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퇴근 후에는 그림을 그리며 살고 있어요. 저는 수업을 동화 읽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어른이 읽어도 재미있고 학생들도 동화를 읽어주면 곤잘 듣고 있어요. 동화는 어쩌면 상상의 세계인데 그 내용이 어른들의 책보다 더 진지할 때가 있어요. 제 그림도 동화와 같다고 생각해요. 그냥 제가 상상하는 세계를 그리고 있어요. 그린다는 것은 밥먹고 차마시는것 같이 일상적이지만 제게는 식후에 차처럼 따뜻하고 산뜻한 시간입니다.

작품 활동에 영감을 주는 것

모든 예술하는 사람들의 표현행위와 마찬가지로 저는 제가 보는 세상을 표현합니다. 작곡가는 음악으로 표현하고 수필가는 글로 표현하고 저는 그림으로 표현해요. 등산할 때 본 다람쥐와 도토리 줍는 사람을 보고 문득 '도토리 주워가지 마세요, 다람쥐

작품 소개



구름연못의 아나나스

Ananas on the cloud pond

50x73, 순지에 분채, 2020 (축자 표구 61x128)

파인애플 꼭지에 달린 것을 떼어 흠에 심으면 새로운 파인애플이 열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후로 물에 부리도 내려보고 흠에 심어도 보았지만 모두 실패했다. 일 년에 한두 차례 도전하는 의례적인 시간 낭비이다.

구름 연못에는 등용문을 기다리는 거대한 잉어 떼와 그 위로 유유히 원앙들이 노닌다. 분홍 꽃이 매력적인 아나나스는 파인애플과 식물이다. 내가 아나나스를 좋아하는 까닭은 파인애플 과실을 열고자 하는 열망인듯하다. 구름연못도, 아나나스도, 등용문을 기다리는 잉어도 모두 허망한 것이다. 하지만 결과가 없다 해서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원앙이 노닐고 가뭇 한번 해엄쳐 물결을 일렁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봄은 모란처럼 온다

Spring comes as tree peony

60x72, 2020, 순지에 분채(축자 표구 60x125)

4월 봄날, 추운 바람과 눈을 견뎌낸 목질화된 줄기 위로 고사리같이 투명한 줄기가 뻗어 나온다. 잎들이 탱탱하게 올라오는 듯 싶더니 어느새 큼직한 꽃망울이 맺힌다. 화려하게 펼쳐진 봄은 찰나에 지나가고 한잎 두잎 봄이 떨어진다. 봄은 그렇게 천천히 오는 듯하더니 조용히 사그라든다.



동물의 사육제 중 13번 백조

The Carnival Of Animal Suite - XIII. The Swan

73x146, 2018, 순지에 분채(축자 표구 98x200)

책이 가지런히 정리된 책장은 책만 있는 것이 아니다. 책을 읽으며 들었던 음악, 책에서 보았던 풍경이 함께 존재한다.



산토끼

Hare

60x72, 2015, 광목에 분채(축자표구 70x125)

토끼가 산이고 산이 토끼이다. 작은 짐승들은 야금야금 열매를 먹고 풀을 먹는 중에도 열심히 씨앗을 옮긴다. 토끼, 다람쥐같이 작은 짐승들은 큰 산의 시작이며 생명의 배달부다. 오늘도 열심히 먹으며 달리며 생명을 전달하는 산의 파수꾼을 응원한다.



소록도

Sorokdo

72x154, 2018, 순지에 분채(축자 표구 82x190)

어린시절 내 기억에 소록도는 푸른 인상으로 남아있다. 어른들이 말씀하셨던 소록도 한센인 이야기, 하얀 사슴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 소록도가서 본 빨간 벽돌건물과 핏물 흐르는 흠이 깊은 차가운 수술대. 작은 사슴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푸른 인상의 섬. 녹동항에서 본 소록도는 수영으로도 갈 수 있으리만치 가까워 보였다. 수많은 환우들이 그 섬을 탈출하기 위해 밤에 맨몸으로 그 바다에 뛰어들었지만 거센 물결을 넘지 못했다고 들었다.



숲의 노래

The songs of forest

72x154, 2019, 순지에 분채(축자 표구 82x190)

바람이 이는듯하더니 숲의 노래가 들린다.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제6번 D장조, BWV102 프렐류드'가 들린다. 숲의 노래는 따뜻하지만 힘있게 내게 온다.

거예요.’하는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하늘 위 구름에는 어떤 세계가 있을까 상상하며 하늘 위의 연못을 그리기도 합니다. 가끔 책을 읽고 그 감상과 메시지를 그리기도 해요.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오래된 미래』를 읽으면 환경에 관한 것을 그리는거죠. 최근에 그린 그림은 고등어가 두 마리 포개져 있는 것을 그렸어요. 마트에 갔더니 고등어 아래턱으로 다른 고등어 한 마리를 포개 놓은 것을 봤어요. 가지런히 예쁘라고 그렇게 했겠지만 제 눈에는 죽이는 것도 잔인한데 아래턱에 다른 고등어를 꽂아 놓은 진열은 좀 잔인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든 생각이 ‘서로 이불이 되어 주는 건가?’였어요. 바다에서 잡혀와 배도 따이고 차가운 얼음 위에 있지만 서로 위로가 되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시다. 그래서 그 순간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고통 속에 잠들지만 다음 생에는 멋지게 꽃피우라는 의미에서 연꽃도 곁들여 줬어요.

3월이면 벚꽃을 그리고 싶고, 4월이면 매화를 그리고 싶고, 5월이면 아카시아나 오동나무꽃을 그리고 싶고 그날그날 눈에 새롭게 보이고 감동을 주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미술을 시작하게 된 계기

대학에 입학하고 처음 미술학원을 가봤습니다. 교육대 안에서 전공과목이 국어과, 수학과, 미술과 등등 과가 나뉘는데 저는 미술과였어요. 그때 전공과목을 대비하기 위해서 화실을 다녔어요. 그때 그린 그림은 거의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었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로는 그림을 제대로 그려본 기억이 없었고 그림 그리는 실력도 그때 멈춰있었어요. 그때부터 열심히 그렸죠.

처음 간 화실이 인문학 같은 그림을 그리는 서양화가분의 화실이었어요. 그때 ‘그림에서 책의 기운이 느껴지면 좋겠다.’를 계속 고민했어요. 그 교수님의 그림은 책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을 줬었고 저도 닮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서양화로 시작했지만 한국화물감이 주는 중첩과 맑음에 매료되어 지금은 한국화만 그리고 있어요. 문인화, 채색화, 서예는 물을 매개로 해요. 저도 한국화 물

감을 물로 녹여 그림을 그려요. 지금은 동양수인판화를 추가로 배우고 있어요. 뭐든 배우면서 그림을 더 맑고 진지하게 그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존경하는 예술가나 롤모델이 있다면?

존경하는 예술가는 멕시코의 프리다 칼로입니다. 프리다 칼로는 죽기 전에 유작으로 수박 그림을 그렸어요. 그 수박에 'Viva la vida'라고 쓰여있어요. 뜻은 '인생이여 만세!'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영국 밴드 콜드플레이의 'Viva la vida'도 여기서 제목을 따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프리다의 삶을 보면 존경할 수 밖에 없어요. 사고로 인한 몸의 고통과 끝없는 수술, 디에고 리베라의 외도 등 감정적인 고통까지 그녀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40여년 마지막을 '인생이여 만세!'라고 마무리한 그녀가 멋져요. 엄청난 힘이 있다고 생각돼요. 존경은 하지만 그녀처럼 슬프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제 롤모델은 천경자입니다. 최근에 그분 며느리 유인숙씨가 쓴 『미완의 환상여행』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며느리가 쓴 천경자의 삶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꾸준히 해서 채색화 남자 작가 중에 멋진 사람이 있다라는 평을 듣고 싶어요. 아직 호가 없어서 세레명으로 호를 쓰고 있는데 사모할 모(慕)자를 써서 모경자라고 써볼까 생각도해봤어요.

앞으로의 미술 활동 방향

뭐든지 끝까지 하는 사람이 멋지다고 생각해요. 화가란 무엇이나 생각했을 때 죽기 전까지 그림을 그리는 것이 화가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린 그림이 이름 없는 사람이 그린 별 볼 일 없는 그림이 아니라 많은 질문을 주고 따뜻한 온기를 주는 책 같은 그림이 되었으면 해요.

박·영·식·장·편·소·설

핑키타운



평창동 핑키타운에 입주하며

돈벼락을 맞았다. 그것도 엄청난.

앞으론 누구도 나를 찌질이나 루저로 보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나는 대한민국 상위 텐 프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주민이다.

하지만 나는 부를 최우선시하는 사람은 아니다. 의식주만 해결되면 나머지 부는 숫자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해왔다. 이미 부자임에도 끊임없이 부의 증식에만 매달리는 인간들을 경멸한다.

어쩌다 한두 번 금테를 두르고 다니는 짓거릴 할지는 모르겠다. 그야말로 돈벼락을 맞았는데 그 정도는 눈감아주길 바란다. 평소 인격이 부와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해 왔다. 스스로를 경계하고 통제할 생각이다.

돈벼락을 맞은 후 나의 내면세계에 달라진 게 없는 것은 아니다. 그 미묘한 변화를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다. 뭐랄까, 이미 다 꺼져버린 줄 알았던 내 영혼 속의 불씨 하나가 가느다란 불길로 타오르기 시작했다고나 할까? 그렇다고 그럼 그렇지, 혀를 차며 속단하진 말기 바란다. 아직 나도 그 불씨의 정체를 알지 못한다.

내 아내 권 교감에게는 당장 변화가 왔다.

“자기야, 제발 집안에서 팬티 바람으로 있지 마. 누구라도 불쑥 찾아오면 어떡해?”

내 집에 불쑥 찾아올 누구는 없다. 그런데도 평창동 주민이 되자마자 권 교감은 새로운 생활 수칙을 공포했다. 검정색 삼각팬티만 걸치고 있는 내 모습이 귀여워 죽겠다고 호들갑떨 때는 언제고.

아무튼 나는 어제 평창동에서도 고급주택가로 꼽히는 핑키타운에 입주했다.

에일리가든

늦잠을 잤다. 8시가 넘었다. 일요일엔 조금 늦게 일어나는 편이다. 그래도 7시는 넘기지 않는다. 권 교감 때문이다. 내 땀엔 힘깨나 쓴 것 같은데도 겨드랑이를 파고들며 콧소리를 냈다.

“자기야, 이 침대 죽인다. 그치? 우리 한번만 더하면 안 될까? 큰 집으로 이사도 왔는데…….”

그때 잠든 척하거나 푹아떨어진 시늉이라도 했어야 했다. 어젠 나도 꽤 흥분된 상태였다. 그 만 오버를 하고 말았다.

“화이 낫? 간만에 코…코피 좀 쏟지 뭐.”

권 교감에겐 섹스가 유일한 스포츠이자 엔터테인먼트다. 뭐든 아끼지 않고 올인 한다. 우선 섹스에 관한 다양하고 실용적인 정보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된다. 여학교 여선생이 어디서 그런 것들을 구해오는지 때마다 신기하다. 물론 수집된 정보들은 바로 임상실험을 통해서 진위 여부와 가치 등급이 판정된다. 그리고 이름 모를 보양식품들이 끊임없이 내게 투여된다. 내가 죽어 땅에 묻히면 제일 먼저 썩기 시작하는 건 사타구니 가운데 그놈일 게다. 옛말에 일꾼은 죽어 어깨부터 썩는다 했으니.

그래도 지난밤은 벅찼다. 권 교감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탱크처럼 몰아붙였다. 코피를 쏟아내진 않았지만 곤죽이 되었다. 등줄기에 진땀이 흐르고 정말로 눈앞에 별들이 떠다녔다. 그 대신 권 교감이 매우 행복해했다. 후회까지 할 일은 못된다.

“이 침대 정말 대박이야. 대박!”

권 교감은 내게 해줘야 할 찬사를 엉뚱하게 침대에겐 쏟아붓고는 바로 나가떨어져 코를 꿊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그야말로 뼈와 살이 모두 녹아버렸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다. 하기는 그 상황에서 쉽게 잠에 빠져든다는 게 이상한 일이다. 로또보다 더한 돈벼락을 맞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잠에 빠져들 수 있는 인간이 세상에 있을까? 우리 권 교감 말고는.

결국 나는 침대에서 빠져나와 침실 발코니로 나가 섰다. 발코니 크기가 전에 살던 집 안방만 했다. 대리석 난간에 기대어 어둠 속에 묻힌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내 망막에는 정원의 구석구석이 선명하게 클로즈업되었다. 사각으로 반듯하게 깎아놓은 사철나무 울타리, 한쪽 구석

에 그림처럼 서 있는 하얀 목재 파고라. 한 달 후 쯤엔 그 위에 늘어진 넝쿨장미가 눈부신 선홍빛들을 줄줄이 터뜨려 내 눈을 놀라게 할 것이다. 그리고 정원의 품격을 상징하는 바로크 양식의 원형 대리석 분수대…….

꿈만 같은 일이다.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다. 내가 에일리가든의 주인이 되다니. 초봄의 쌀쌀한 새벽공기만 아니었다면 동이 틀 때까지 발코니에 석상처럼 서 있었을 것이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면서 에일리가든의 고풍적인 자태가 조금씩 드러나는, 아마도 숨 막힐 그 광경을 지켜보기 위해.

잠에서 깬 나는 잠시 당황했다. 남의 집인 듯 낮설었다. 우선 나의 왜소한 체구와 획극적 대비를 이뤄내는 웅장한 수입가구들이 눈에 걸렸다. 게다가 사방을 보라색 실크로 도배한 벽 앞에선 주눅까지 든다. 영국 왕실의 상징색이 보라색이란 소리를 들어서 그런가? 아무튼 나와 같은 부류에게는 허락될 수 없는 금단의 구역에서 자고 일어난 듯 편치 않았다.

그런데 권 교감은 나랑 종자가 조금 다르다. 한 달 전 집 구경을 하러 와서 이 침실에 처음 들어왔을 때다. 권 교감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바로 내 귀에 속삭였다.

“자기야, 벽지 색깔 죽인다. 정말 섹시해. 완전 내 취향이야. 그치?”

경상북도 봉화 산골 출신 권 교감은 곧바로 영국 왕실 취향을 공유했다. 아무리 뼈대 있는 안동 권 씨 가문의 후손이라 해도 놀라운 일이다. 귀족적 감수성이란 게 별것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래도 내게는 꽤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원래 나란 인간은 쥐도 못 먹는다는 찌질이 그룹에 속한다.



아내인 에일리가 보라색을 워낙 좋아해서 도현 형이 영국에까지 가서 직접 도배용 실크를 골라왔다고 했다. 사실 그 얘기를 들었을 땐 돈이 썩어나는 인간들의 호사로만 보여 심사가 뒤틀렸었다. 아무튼 나로서는 흥내도 낼 수 없는 지극 정성이다.

도현 형의 아내 에일리는 뱃속의 아이를 유산한 뒤 우울증에 빠졌다. 그리고 얼마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십년 전에 일어났던 끔찍한 일이다. 당시엔 텔레비전 뉴스에도 나와 널리 알려졌던 얘기다.

그 직후 도현 형은 해오던 일들을 모두 접고 이 저택에 칩거했다. 유일하게 하는 일은 유명한 재즈 보컬이었던 에일리의 추모 사업뿐이었다. 가산을 정리해 에일리 홀이라는 재즈 전용공연장을 세웠고 매 주기마다 추모앨범을 내놓았다. 앨범에 수록된 곡들 대부분 도현 형이 작곡했다.

나는 도현 형의 지고지순하고 헌신적인 사랑이 부럽고 존경스러웠다. 어떻게 사람이 사랑 하나만 가슴속에 품고 살 수 있을까? 얼마나 애절했던 사랑이기에 멀쩡한 사람이 한순간에 폐인이 돼버렸을까? 물론 나는 사랑에 대해 논할 자격이 없다. 사랑이야말로 주체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아닌가? 참으로 부끄러운 얘기지만 나는 살아오며 내 삶의 주체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일찍 일어난 권 교감은 집안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있을 것이다. 이미 수십 번은 둘러봤지만 어떻게 또 보고 싶지 않을까? 내 앞에선 아무리 의연한 척해도 하늘에서 엄청난 횡재가 똑, 하고 눈앞에 떨어졌는데. 아마도 터진 박에서 금은보화가 쏟아지는 걸 쳐다보는 흥부 마누라 꼴 그대로일 것이다. 반쯤 넋을 잃은 채로 코끼리 엉덩이를 뒤뚱거리고 있을 권 교감의 모습이 떠올라 웃음이 절로 나왔다.

그러다 문득 아침밥 먹을 때가 지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명함 상으로야 소설가지만 나의 실질적인 직업은 전업주부다. 주부가 식구의 배를 훑게 해서는 안 되는 법. 나는 벌떡 침대에서 일어나 서둘러 옷을 찾아 입었다.

내 아내 권윤덕은 서울 종로구 소재 ○○여중의 교감선생님이다. 내가 보기에 권 교감은 천생 교사고 천생 교감이다. 아마도 멀지 않아 천생 교장이 될 것이다.

일단 키 174센티미터 체중 85킬로그램의 우람한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가 보통이 아니다. 시쳇말로 처음부터 반은 먹고 들어간다.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받는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위압적인 카리스마가 뒷받침되어야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닐까? 반시대적인 편견이라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말이다.

그리고 권 교감은 겉으로는 무심해 보여도 매사에 치밀하다. 같이 산 지 이십 년이 다 되어가지만 내게 잔소리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도 나를 완벽하게 통제해 왔다. 권 교감의 머릿속에는 세밀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나에게 대한 데이터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는 게 틀림없다. 권 교감의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려 했던 적

은 없는 것 같지만, 혹시 그랬다 해도 미리 예측하고 어떻게든 예방했을 것이다. 권 교감의 학교 생활을 들여다본 적은 없어도 이렇듯 용의주도한 잔머리로 동료교사들과 학생들을 장악하고 있게 분명하다.

그런데 권 교감의 결정적인 필살기는 전혀 다른 데 있다. 꺾어보기 전에는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건 육중한 거구에서 느닷없이 빵, 하고 터져 나오는 애교다. 권 교감이 맘먹고 애교 공세를 펴기 시작하면 나는 숨이 넘어갈 각오를 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권 교감의 탁월한 총체적 역량을 학교 이사장이 눈여겨보지 않았을 리 없다. 권 교감은 이례적으로 서른여덟이라는 젊은 나이에 교감으로 승진했다. 그와 동시에 나는 직장을 때려치우고 전업주부라는 안정적이면서도 시간활용이 용이한 직업을 택했다. 그리고 툼툼이 추리소설을 써서 소설가라는 부업도 갖게 되었다. 물론 나의 의지라기보다는 권 교감의 강력한 권유와 지원에 따른 것이지만.

나는 일찌감치 권 교감에 의해 포획되어 주도면밀하게 사육되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더없이 사실적이고 함의도 풍부한 매혹적인 서술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께름칙하다. 혹시라도 내가 피해자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하건대, 나는 권 교감에 의해 사육되어온 삶에 만족한다. 권 교감에게서 벗어난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물론 불만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자기 삶에 백 퍼센트 만족하며 사는 인간이 어디 있을까?

권 교감은 나와 ○○대학교 영문과 87학번 동기다. 동기지만 나보다 세 살이나 많다. 고향인 봉화

에서 여고를 졸업한 뒤 아버지가 대학 진학을 가로막아 과수원 농장 일을 했다. 그러다 일 년쯤 후 집에서 도망쳐 나와 무작정 상경을 했고, 이년 간 구로공단 내 봉제공장에서 일하며 말 그대로 주경야독을 했다. 그 결과 명문인 ○○대학, 그것도 커트라인이 높은 영문과에 합격했다. 권 교감이 쉬쉬해 나만 알고 있는 감동적인 영웅서사시다.

80명이나 되는 영문과 동기들 중에서 권 교감의 존재를 처음 인식하게 된 것은 학내 서클인 타임반의 신입생 환영회에서였다.

지금도 술이 센 편은 아니지만 소주 세 잔만 마셔도 나가떨어질 때였다. 더구나 그날 나는 생전 처음으로 막걸리라는 것을 마시게 되었다. 신입생들은 돌아가며 냉면그릇에 가득 담긴 막걸리를 단숨에 들이켜야만 했다. 눈을 질끈 감고 냉면그릇을 기울여 입안에 막걸리를 무작정 부어넣었다.

“으쌔! 으쌔!”

귀를 울리는 폭압적인 함성에 떠밀려 반 정도는 삼킬 수 있었다. 그러다 한순간 숨이 막히며 눈앞이 노래졌다. 결국 나는 마셨던 막걸리를 바지 위에 토해내고 상 위에 얹어졌다.

그때 혜성처럼 나타난 운명의 흑기사가 권 교감이다. 권 교감은 내가 마시다 남긴 막걸리를 단숨에 들이키고는 나를 번쩍 들어 안았다. 당연히 난리가 났다. 선배와 동기들이 모두 미친 듯이 괴성을 질러댔다.

“성준아, 정신 차려라.”

나를 술집 빈 방에 눕혀놓고 권 교감이 내 어깨를 흔들었다. 무척이나 놀랐다. 생전 처음 보는 여학생이 내 눈 바로 앞에서 이름을 불렀으니 말이다.

“누...누...누구세요?”

“넌 어떻게 네 과 동기도 모르니? 권운덕이다.” 권 교감이 자기 이름을 밝히곤 느닷없이 바지

를 벗기려 했다. 나는 기겁을 하고 소릴 질렀다.

“지…지금 뭐…뭐하시는 겁니까?”

“이 꼴을 하고 집에 갈 거니? 막걸리는 마르기 전에 닦아내야 돼. 사내자식이 돼서 뭐가 부끄럽다고.”

권 교감이 기어코 내 바지를 벗겨선 들고 나갔다. 그리고 잠시 후 들어와 물로 닦아낸 바지를 내밀었다. 나는 뒤돌아서서 바지를 엉거주춤 두 다리에 끼워 넣었다.

“우리 나가자. 찬바람 쐬면 정신이 날 거야.”

권 교감이 나를 끌어안듯이 부축해 술집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런데 그 다음엔 기억이 없다. 오히려 찬 공기를 접하며 정신을 잃었던 것 같다.

잠결에도 추위에 몸을 떨다가 정신이 들었다. 나는 문과대 시계탑건물 앞 벤치에 누워 있었다. 별빛 하나 없는 캄캄한 밤이었다. 오로지 무거운 정적뿐이었다. 두려움에 벌떡 일어나 주위를 살폈다. 놀랍게도 옆 벤치에 권 교감이 커다란 몸을 바짝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다. 겹옷을 벗어 내게 덮어주고 반팔 티셔츠 바람이었다. 그제야 지난밤 일이 어렴풋이 기억났다.

“이봐요.”

권 교감을 흔들며 깨웠다.

“성준아, 괜찮니? 속은 괜찮아?”

권 교감이 언 몸을 부르르 떨며 일어났다. 그리곤 대뜸 내 걱정부터 했다.

“어…어…어떻게 된 거예요?”

“집에 데려다주려 했는데 네가 정신을 못 차렸어. 할 수 없이 이리로 데리고 왔다. 다 큰 사내를 내 집에 데리고 갈 수도 없고. 근데 넌 동기한테 웬 존댓말이니? 말 뇌라.”

“고마워. 그…근데 네 이름이……?”

나는 권 교감의 겹옷을 돌려주며 고개를 숙였다.

“별써 잊었니? 권윤덕이다. 다신 잊어먹지 마.”

그때의 다소 엽기적인 만남에서 내가 느꼈던 것은 고마움이나 감동이라기보다는 두려움에 가깝다. 어머니 말고는 누구와도 단둘이 마주한 적이 없었다. 동정이나 호기심어린 시선 외에는 누구의 관심을 받아본 적도 없었다. 나만의 모래성



에 누군가가 불쑥 쳐들어온 느낌이었다. 권 교감의 느닷없는 관심과 호의가 나를 불안케 했다. 사실 그때 나는 덩치가 크고 웬지 눈빛이 끈적끈적해 보이는 권 교감을 쳐다보는 것도 무서웠다.

그런데 얼마 안지나 권 교감의 존재를 잊게 되었다. 조금씩 학교생활에 익숙해져갔고, 그러다 타임반의 다른 여학생과 거짓말 같은 사랑에 빠진 것이다. 내 눈에는 주말의 명화 <로마의 휴일>에 나오는 오드리 헵번을 똑 닮은 여자애였다.

오드리 헵번과의 연애는 역시 찌질이에겐 분수 넘치는 짓이었다. 여섯 달을 넘기지 못했다. 아주 잘 생긴데다 한창 잘 나가는 선배한테 빼앗겼다.

내게 무언가의 상실은 바로 모든 것의 상실을 의미한다. 무언가와 관계를 맺으면 나의 모든 것은 곧바로 무언가로 전이되기 시작한다. 허약한 자아에게 작용하는 일종의 삼투압현상이랄까?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다. 휴학을 하고 옆질러

진 물처럼 누워만 지냈다. 그런데 나의 유일한 보호자인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 암이었다. 졸지에 고아가 되었다. 나를 돌보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결국 나는 국가기관에 위탁되었다. 군에 입대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에게 군대생활은 모든 일상이 가혹행위였다. 처음 몇 달 말고는 누구도 내게 손끝 하나 대지도 않았지만, 좁은 공간에서 적대적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것 자체가 내게는 공포였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흐릿한 나무반 불빛 아래서 언제까지라도 낮설기만 할 이들이 악령처럼 어슬렁거리던 모습이 떠오르면 지금도 오줌을 지릴 것만 같다.

나는 새삼스레 절망했다. 내겐 세상을 살아갈 최소한의 능력도 없었다. 그만 벼랑에서 손을 놓아버리고 싶었다. 보초를 설 때마다 실탄이 들어 있는 M16 소총의 방아쇠를 내 머리를 향해 당기고 싶은 유혹에 빠지곤 했다. 물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최후의 결단을 내리는 거야말로 엄청난 정신력이 요구되는 걸 테니까. 나는 그늘 아래 널어둔 생선처럼 비린내를 흘려내며 말라갈 뿐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건 내게 기적이었다. 강원도 철원 산골짜기까지 권 교감이 찾아온 것이다.

“실망했니? 그 예쁜 애가 아니라서.”

당직사관에게서 외박증을 받아 쥐고 위병소로 뛰어내려온 내게 권 교감이 처음 한 말이다.

실망이라니, 무슨 천벌을 받으려고. 구원이었다. 권 교감은 하늘에서 내게 내민 구원의 손길이었다.

물론 그 당시 내 머릿속에 권 교감의 존재는 없었다. 권윤덕이라는 아가씨가 면회를 왔다는 소

리를 듣는 순간 언뜻 누군지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을 정도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손을 내민 사람이 권 교감이란 사실이다. 이런 걸 두고 바로 운명이라 하지 않을까?

얇은 코트를 입고 위병소 앞을 서성이는 권 교감이 보이는 순간 나의 찌질한 영혼은 바로 날개를 펴고 그녀의 든든한 어깨 위로 날아가 앉았다. 내 앞에서 장엄한 운명의 심포니가 울려 퍼졌다.

“네...네...네가 어떻게?”

“그냥 네가 보고 싶어 왔어. 부담스러우면 말해. 바로 돌아갈게.”

“아...아냐. 나...나도 보고 싶었어. 가...가끔 네 생각 했어.”

나는 그때 권 교감에게 거짓말을 했다. 절대로 악의는 아니었다. 내게 다가온 운명에 순응하겠다는, 일종의 고백이고 선언이었다. 그 후론 내가 기억하는 한 권 교감에게 또다시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성준아.”

권 교감이 감격에 겨워 나를 와락 끌어안았다. 나도 까치발을 하고 권 교감에게 격정적인 키스로 응답했다.

우리는 권 교감이 싸온 통닭과 김밥을 안주로 소주를 세 병이나 마셨다. 권 교감이 놀랍도록 늘어난 내 주량에 놀라워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말이 뿌연 축 낮은 전등 아래로 찾아들었다. 그 날은 당연히 내 스스로 바지를 벗었다. 권 교감도 스스럼없이 옷을 벗었다.

“이제 난 네 꺼야.”

내 몸을 받아들인 권 교감이 내게 얼굴을 파묻으며 말했다. 그때 난 그 말이 너무도 황홀하고 감격스러웠다. 비로소 나는 내 삶의 주체로서 승격되었다고 믿었다. 지금껏 나는 이 한마디가 주었

던 감동의 힘으로 살아왔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제 넌 내 꺼야.”라고 한 말을 잘못 들었는지도 모르지만.

제대할 때까지 권 교감은 거의 매달 면회를 왔다. 그날은 한 달간 굶주린 영과 육이 살찌는 날이었다. 한 달 내내 오로지 권 교감이 면회 오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지냈다.

내가 제대하고 복학하자마자 권 교감은 지금의 ○○여중 영어교사로 들어갔다. 그때부터 나는 사실상 권 교감과 동거에 들어간 셈이다. 집에서 자는 날보다 권 교감의 반지하 셋방에서 자고 학교에 가는 날이 더 많았다. 나는 졸업 후 한 영자신문사에 교열기자로 취직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월급을 탔던 달에 권 교감과 웨딩마치를 올렸다.

나는 전문용어론 유창성 장애라고 하는, 말더듬이다. 원인은 모른다. 서너 살 때부터 말을 더듬었다고 한다. 결혼 후 많이 나아졌지만 예전에 정도가 매우 심했다. 한 번에 몇 음절 이상을 말하지 못했다. 게다가 별안간 턱을 위로 추켜올리는 턱 장애까지 갖고 있다. 흔히 말더듬이에게 수반되는 장애로 의학용어론 회피행동이라고 한다. 지금도 된소리는 잘 내지 못한다. 그리고 처음 보거나 어려운 사람, 특히 낯선 여자 앞에선 심하게 말을 더듬는다.

어릴 때부터 말을 하지 않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다. 애초부터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려고 하질 않았다. 당연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 내내 아이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다. 언제나 나는 찌질이였을 뿐이다. 더구나 공부 말고는 잘 하는 게 하나도 없었다. 아이들은 나를 비웃다가 아예 존재 자체를 무시했다.

결국 나는 중2때 자퇴를 하고 방안에서만 살

았다. 돌아가신 어머니 말고는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없었다. 중2때 나는 사회적 의미로는 성장을 멈췄다.

방구석에만 처박혀 살았어도 외로움을 몰랐다. 그리운 누군가가 있을 때 외롭기도 한 걸 테니까. 내겐 상상 속 미지의 대상조차도 없었다. 내 삶의 영역에는 오로지 나와 어머니 두 존재뿐이었다. 어쩌면 그때 나는 행복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방안에만 안주하는 게 언제까지나 허락될 수는 없었다. 고입과 대입검정고시를 연달아 패스하고 ○○대학 영문학과에 합격했다.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세상살이를 학습해갔다. 하루에 한 발짝씩만 더 멀리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소용없는 짓이었다. 면역결핍증 환자는 사소한 감기만으로도 죽을 수 있다. 나는 한순간에 붕괴되었다. 그리고 붕괴된 나의 삶을 일으켜 세운,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게 사회적 삶이란 걸 부여해준 이가 바로 권 교감이다.

나는 권 교감과 눈에 보이지 않는 텃줄로 연결되어 있다. 권 교감은 내게 아내이기 이전에 모성으로 존재한다. 권 교감이 없다면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할지도 모른다. 태아가 텃줄을 통해 어미에게 모든 것을 위탁해 놓듯이 나도 나의 존재 자체를 권 교감에게 위탁해 놓았다.

나의 감정과 욕망까지도 권 교감이라는 든든한 성체에 맡겨두었다. 나의 허약하고 예민한 신경체계로선 감당할 수 없는 외부세계의 자극들을 권 교감이라는 완충지대를 통해 보다 순화된 상태로 받아들였다. 그 역도 마찬가지다. 평소 억눌려 있던 나의 감정과 욕망은 느닷없이 통제 불능의 상태로 표출되어 주변을 놀라게 했고, 그때마다 감당할 수 없는 자학으로 되돌아왔다. 결혼 이후엔

이 또한 권 교감을 통해 정제된 형태로 외부세계에 표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때문에 그나마 최소한의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게 가능해졌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간혹 나의 신경불안 증세가 심해질 때는 지금도 권 교감이 자기 젖을 물려 재운다. 권 교감은 나의 어머니다. 그리고 아내다.

흥부 마누라처럼 신이 나서 집안 여기저기를 헤집고 다닐 거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나는 한참 동안 넓은 집안을 헤매고서야 부엌문 밖 테라스에 멍하니 앉아 있는 권 교감을 찾아냈다. 신이 나기는커녕 표정이 어두웠다.

“여기서 뭐해?”

내 물음에 권 교감은 흐릿한 미소부터 지어보였다.

“후원 구경하고 있어. 참 아름답다. 그치?”

“응. 나도 앞마당보단 여기가 더 맘에 들어. 쓰…쓸쓸한 정취 같은 게 있거든.”

후원엔 높다란 호두나무 세 그루에 커다란 돌 몇 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어 쓸렁해 보인다. 그러나 찬찬히 들여다보면 여기저기 야생화들이 흩어져 숨어 있는 게 꽤나 정감 있다. 특히 낙엽이 쌓인 가을의 후원은 시적이기까지 하다.

“그래. 맞아. 쓸쓸한 정취…….”

권 교감이 고개를 끄덕이다 나를 쳐다보며 물었다.

“기도현 선배는 어떤 사람이야? 뭔가 남다른 영혼을 지닌 사람일 것 같아.”

“남다른 영혼?”

권 교감의 말에 웃음이 새어나왔다. 언젠가 도현 형이 말했었다. 네가 좋은 이유는 우린 서로 닮은꼴이거든. 나사 빠진 영혼.

“늘 봐왔으면서도 잘 모르겠어. 매우 열정적이

다가도 어떤 때는 더없이 나약하게 보이기도 했고. 아…암튼 분명한 건 더할 수 없이 착한 사람이란 거야. 와…와이프를 더없이 사랑했던 사람이고.”

“와이프 이름이 뭐라 했지? 가수였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에일리라고 유명했던 재즈 보컬인데, 당신 몰라?”

“봉화 산골 촌년이 어떻게 재즈쪽이나…….”

“왜 고…공순이 출신이란 소린 안 붙이고?”

웃으라고 한 말에 권 교감은 아무 대꾸도 없이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오래 전이지만 권 교감은 한때 심한 우울증을 앓았었다.

“당신 어디 아파?”

“왜?”

권 교감이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눈빛도 왠지 슬퍼보였다.

“표…표정이 어두워서.”

“아냐. 좀 피곤해서 그래.”

“당연하지. 난 간만에 코…코피 쏟을 뻔했다.”

내 말에 권 교감이 픽, 하고 웃기만 했다. 뭔가 이상하다. 다른 때 같았으면 뒤집어질 듯이 웃음을 터뜨리며 호들갑을 떨었을 것이다.

“정말 이 큰 저택이 우리 집이 된 건가?”

권 교감이 고개를 빼 새삼 집을 둘러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실감이 나?”

“응. 도로 내놓으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 같네.”

“그게 거…걱정이 돼서 내놓고 좋아도 못했어?”

“응.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인데……. 맘이 편하진 않았어.”

“고…공짜가 아니라 선물이야. 그리고 우리가 이 집을 영원히 가질 수도 없잖아? 어…어…언젠간 우

리도 누구에게나 선물로 줘야할 텐데 뭘. 그때까지 우리가 과...관리한다고만 생각하자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 말을 하면서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런데 권 교감은 고맙게도 내 말장난에 넘어가 주었다.

“알았어. 자긴 정말 말 예쁘게 한다. 갖는 게 아니고 맡아두는 거라고?”

권 교감이 내 어깨를 툭, 치고는 일어섰다.

“밥 먹자. 배고프다.”

“아직 바...밥 안 했는데?”

“내가 된장찌개 끓여놨어.”

“오랜만에 마누라가 해준 밥 먹어보겠네?”

“미안해. 어서 들어가자.”

권 교감이 육중한 몸을 내게 기대고는 팔을 끌어안았다.

행복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욕망을 줄이거나 소유물을 늘리거나 하면 된다. 어느 쪽이라도 된다.

미화 백 달러 지폐 속 초상화의 주인공 벤저민 프랭클린이 남긴 명언이다. 참으로 지당한 말씀이다. 너무나 당연해서 무의미하게까지 들린다. 그런데 이 말을 몇 번만 곱씹어보라. 교묘하게 숨겨져 있긴 하지만 금방 함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소유물을 늘리는 행위가 욕망을 줄이는 행위와 함께 의지적 선택의 대상이 되면서 일대 일의 동등한 가치로 내세워졌다. 이것이 함정이다. 수도사가 아닌 한 욕망을 줄이고 싶은 사람은 없다. 그건 본능이다. 어떤 면에선 인간의 존재 이

유라고도 할 수 있다. 단지 가난하니까, 벤저민 프랭클린 말대로 그나마 자족하며 최소한의 행복이나마 느끼려다보니 어쩔 수 없이 금욕하는 것이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가난과 그 결과인 금욕을 당연시 또는 신성화함으로써 소유물을 늘리는 행위, 즉 탐욕의 정당성을 은근슬쩍 챙긴다. 어려운 말 좀 쓰자면, 가난을 성스러운 희생제의로 내세워 놓고 실컷 탐욕을 부려보겠다는 말이다. 세계 최대 자본주의국가 미합중국의 건국영웅다운 발상이다.

벤저민 프랭클린과 같은 화법을 쓰는 인간들이 의외로 많다. 대중에게 잘 알려진 명사일수록 특히 이런 화법을 즐긴다. 나는 이런 자들을 가차 없이 사기꾼으로 분류한다. 그런데 그 사기꾼들 중 하나가 바로 나란 인간이다. 나야말로 도현 형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희생제의로 삼아 별다른 거리낌도 없이 돈벼락을 맞았다.

도현 형은 내가 다닌 대학교 펜싱부 선배다. 나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타임반과 펜싱부 두 서클에 가입했다. 어두운 방구석에만 갇혀 살다가 밝은 세상으로 나오니 두려우면서도 신이 났던 것 같다. 감당도 하지 못할 과욕을 부렸다.

나보다 학년이 3년 위인 도현 형은 펜싱에 미친 사람이었다. 철학과였던 도현 형은 수업시간 빼고는 펜싱부 연습실에만 처박혀 살았다.

펜싱부 최고의 검객이었다. 거의 말수는 없는 편이지만 가장 열성적으로 후배들을 지도했다.

나는 도현 형을 무척이나 따랐다. 도현 형도 특별히 내게 살갑게 대했다. 자주 밥이나 술



을 사주곤 했다. 돌이켜보면 도현 형과 나는 서로 비슷한 구석이 있었던 것 같다.

졸업 후 도현 형은 소식이 끊어졌다. 그러다 몇 년 후 엉뚱하게 팝 칼럼니스트가 되어 나타났다. 그때까지 나는 도현 형이 그 동네에선 꽤 알아주는 재즈 피아니스트이고 작곡까지 한다는 사실을 몰랐었다. 그리고 손꼽히는 재벌인 ○○그룹 회장이 혼외정사를 통해 낳은 아들이란 소문도 그때서야 듣게 되었다. 도현 형은 몇몇 잡지에 칼럼을 연재하며 작곡활동을 했다. 한창 때에는 한 FM방송에서 오후 2시대에 음악 프로그램까지 진행했다.

도현 형을 만나볼 엄두는 내지 못했다. 유명인이 되어버린 도현 형은 이미 나와는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다.

도현 형은 꽤 늦은 나이에 에일리라는 재즈 보컬과 결혼했다. 에일리는 재즈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어지간히 알 만큼 스타였다. 그때만 해도 미국에서 정통으로 재즈를 공부하고 온 뮤지션은 에일리가 유일했다. 그런데 막상 그녀를 유명하게 한 것은 재즈가 아니다. 뛰어난 미모도 화제였지만, 무엇보다 왕년의 톱스타 유미연의 딸이란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60년대 말 당시 은막의 여왕이라 불리던 유미연은 한창 전성기에 홀연히 사라져서 대중을 놀라게 했었다. 그렇게 신비에 싸여 있던 그녀가 이십오 년 만에 딸 에일리와 함께 미국에서 귀국했던 것이다. 그때 에일리의 생부에 관한 이런저런 소문들이 떠돌았던 것 같은데, 지금 내 기억 속에는 남아 있지 않다. 그리고 2년 반쯤 지나서 에일리가 자살했다는 얘길 듣게 되었다.

내가 도현 형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은 에일리 7주기 추모공연에서였다. 우연히 인터넷 포털사이

트에서 공연소식을 알게 되었다.

이백 석 규모의 에일리 홀은 성황을 이뤘다. 공연은 출연자들이 에일리와 얽힌 추억을 한두 마디 이야기한 뒤 연주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도현 형도 출연해 자신이 작곡한 두 곡을 피아노로 연주했다. 뭔가를 길게 얘기하긴 했는데, 기억에 남는 것은 에일리가 자신의 가슴속에 여전히 살아 있고 지금도 매일 밤 그녀의 존재가 느껴진다는 말이다. 가끔은 섹스도 한다고 농담을 해 관객들을 웃겼다.

공연이 끝난 후 나는 사람들 사이에 끼여 출입구 쪽으로 걸어 나왔다. 도현 형을 한 번 만나보고 싶긴 했었다. 하지만 추모객들이 많아 내 차례까진 돌아올 성싶지 않았다. 그런데 출입구에서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던 도현 형이 멀리서 나를 알아보곤 소리를 질렀다.

“너 혹시 성준이 아니니?”

너무도 감격스러웠다. 도현 형이 나를 아는 체 해주다니. 나는 허겁지겁 사람들을 밀치며 도현 형에게 다가갔다.

“예. 저예요. 성준이.”

“정말 오랜만이다. 반갑다.”

도현 형이 나를 와락 껴안았다.

“네 소설 읽어봤다. 그때 널 만나봐야지 생각은 했었는데 어찌다 보니 연락을 못했다.”

“저도 허…형 소식은 가끔 들었어요.”

“그래? 어떤 소식을? 아무튼 너 오늘 어디 가지 말고 내 곁에 꼭 붙어 있어라. 뒤풀이 하느라 정신 없겠지만 너랑 꼭 따로 술 한 잔 해야겠다.”

뒤풀이가 끝나고 근처 바에서 도현 형과 마주 앉은 것은 자정이 다 되어서였다.

“같은 가끔이라도 손에 쥐어보냐?”

이런저런 얘기 끝에 도현 형이 펜싱을 계속하

고 있냐고 물었다.

“아뇨. 허…형은요?”

“꾸준히 한 셈인데 어쩌다보니 나도 지난 한해는 손에서 놓고 살았다. 김객이 칼을 놓으면 죽는 건데 말이다.”

도현 형이 웃음을 짓다 갑작스런 제의를 했다.

“너 시간 되면 나랑 같이 운동하지 않을래? 일주일에 한 번, 두세 시간 정도.”

귀가 솔깃해졌다. 다시 펜싱을 하게 되다니. 그것도 도현 형이랑.

“저야 좋지요. 그…근데 어디서요?”

“내 집에서 하자. 내가 집에다 피스뜨 깔아놨거든.”

“예?”

도무지 도현 형의 말이 믿기지가 않았다. 피스뜨란 펜싱 경기용 매트를 말한다. 폭이 2미터고 길이가 14미터나 된다. 그게 개인주택에 깔려 있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았다. 도현 형이 놀라는 내 얼굴을 바라보며 웃음을 지었다.

“와보면 안다.”

도현 형 말대로 그의 집에 가보고서야 비로소 이해가 되었다. 유럽에나 있을 것 같은 성채로만 보였다. 이 성채가 바로 어제부터 나와 권 교감이 살고 있는 평창동 저택이다. 거실 옆 테라스에 특별히 연습실을 만든 것 같았다. 사방이 유리벽인 널따란 연습실에 피스뜨가 깔려 있고 한 쪽엔 장비를 보관하는 로커가 설치되어 있었다.

매주 수요일 오후 도현 형 집에 가서 펜싱 연습을 했다. 처음 한해는 도현 형에게 일방적으로 배워야했다. 그러나 그 후엔 내 실력도 조금씩 늘어 도현 형과 시합을 하기도 했다. 간혹 거르는 때도 있었지만 대체로 꾸준하게 운동을 해온 셈이다.

그러다 다섯 달 전인 지난해 11월에 바로 그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이 정원이 그렇게 좋으니?”

도현 형이 내게 물었다. 운동을 마치고 테라스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을 때였다. 황금빛으로 변한 잔디밭에 새 한 마리가 내려앉아 뒤뚱거리는 모습에 넋을 빼앗기고 있던 나는 도현 형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예?”

“에일리가든이 그렇게나 네 맘에 드느냐고?”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감히 ‘예/아니요’의 양자택일 형으로는 답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맘에 든다는 말은 도…동격이거나 아랫것에 대한 감정표현이에요. 누구도 하느님이 맘에 든다, 라고는 안하죠. 에일리가든은 경외와 차…찬미의 대상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 격에 맞는 트…특별한 수사가 필요해요.”

표현이 조금 과장되었던 건 사실이다. 그래도 내 말은 진심이였다. 아부하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었다. 내가 도현 형에게 그럴 이유가 없었다. 에일리가든을 정말로 사랑했을 뿐이다.

“뭐라고?”

도현 형은 내 말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입을 벌린 채로 내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때 문득 예이츠의 시 <이니스프리 호수 섬>이 떠올랐다. 나는 영어 원문으로 몇 구절을 암송했다. 신기하게도 말을 전혀 더듬지 않았다.

“와우, 브라보!”

도현 형이 벌떡 일어나 맥주잔을 치켜 올렸다. 나는 쑥스러워 얼른 잔을 부딪치고 맥주를 단숨

에 들이켰다.

“성준아.”

맥주를 마시고난 뒤 도현 형이 속삭이듯 나를 불렀다.

“에일리가든 너 즐까?”

“예?”

사실 난 그때 별로 놀라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으니까. 기분이 좋아 그냥 해본 소리거나 어떤 수사적 표현인가보다 했다. 부자들이 아니고선 이해할 수 없는. 도현 형도 더 이상 말을 잊지 않고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겨버려 나는 바로 잊었다.

“그래. 암만 생각해봐도 너밖에는 없다.”

그런데 한참 후 도현 형이 정색을 하며 다시 그 얘길 꺼냈다.

“이 집을 성준이 너한테 주마.”

“혀...혀...형, 무슨 소리에요?”

“농담 아니야. 이 집을 네게 주겠다고.”

“시...시...시...실없는 소리 그만해요. 갈게요.”

일어서려는 나를 도현 형이 붙잡아 앉혔다.

“다음 달에 에일리 10주기 공연 마치고 나는 뉴질랜드로 이민 간다. 그런데 이 집을 돈 받고 모르는 사람에게 넘기긴 싫어. 나 부자 아니냐? 이 집 안 팔아도 평생 먹고사는 데 전혀 지장 없다. 네가 원한다면 정말로 이 집 너한테 넘겨줄게.”

그때부터 나는 공황상태에 빠졌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냥 두렵기만 했다.

“마...마...말도 안돼요. 혀...형이 이 집을 제게 준다고 해도 전 못 살아요. 못 들은 걸로 할래요.”

나는 다시 붙잡는 도현 형을 뿌리치고 그 집에서 나왔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도현 형의 저택을 흑시라도 갖게 될지 모르는 기대 때문이 아니다. 그 반대였다. 웬지 도현

형이 나를 희롱한 것 같다는 불쾌감 때문이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도현 형에게서 전화가 왔다. 바로 집으로 오라고 했다. 그 얘기자면 가지 않겠다고 버텼지만 끝내 거절을 못했다. 그러기엔 도현 형의 목소리가 너무도 간곡했다.

“밤새 한숨도 못자고 고민했다. 어쩌면 네게 좋은 일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다른 방법이 없구나. 부탁한다. 성준이 네가 이 집을 맡아줘라.”

도현 형이 프린터로 출력한 A4지 두 장을 내밀었다. 최소한의 형식도 갖추지 못한 메모에 불과했지만, 말하자면 계약서였다.

기도현과 강성준은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1. 기도현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 ○-2 소재 가옥 및 대지를 강성준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
2. 강성준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한다.
 - 1) 향후 10년 이내엔 가옥 및 대지를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하지 않는다.
 - 2) 향후 10년 이내엔 가옥 및 부대시설을 원형대로 보존한다.
 - 3) 향후 10년 이내엔 지하실 스튜디오를 폐쇄된 상태로 유지한다.

“사실 계약서란 게 아무런 의미도 없지만 서로 잊지 말자는 뜻에서 적어봤다. 십 년 내엔 가급적 집과 정원에 손대지 말았으면 한다. 꼭 필요하면 할 수 없지만. 그리고 지하실 스튜디오엔 에일리의 유품들이 있다. 치워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다. 그냥 잠가뒀으면 좋겠다. 자, 밑에 사인해라.”

저택을 내게 주겠다는 도현 형의 말은 진심이

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현실로 다가왔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다시 두려움에 휩싸였다. 대지가 330평이라 들었다. 암만 적게 잡아도 40억이 훨씬 넘는 재산이다. 그런데 황재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웬지 엄청난 재앙을 담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를 앞에 둔 것만 같았다.

“아네요, 형.”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혀...형의 마음은 추...추...충분히 알겠는데, 이걸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못돼요.”

“성준아, 내가 이렇게 부탁한다.”

“도현 형, 미안해요. 다른 사람 차...찾아보세요.”

나는 도현 형에게서 뒷걸음쳐 그 집에서 뛰쳐나왔다.

그런데 며칠 후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다. 증명서 몇 통과 인감도장을 갖고 오라는 거였다. 다시 며칠간 병든 닭처럼 방구석에만 처박혀 끄끙 앓았다. 결국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다.

도현 형의 가옥과 대지가 내 명의로 바뀌었다. 세금 문제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해결해줬다. 나는 졸지에 40억 이상의 재산가가 되어버렸다. 돈벼락을 맞았다.

틀림없이 나를 염치없는 자라고 비난할 것이다. 결코 재산이 탐나서가 아니었다. 내가 에일리가든을 지키고 있는 한 도현 형의 지고지순한 사랑이 영원히 꽃피우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아무도 내 말을 믿진 않겠지만.

그 후로 도현 형을 딱 한번 보았다. 그것도 잠깐 동안. 에일리 10주기 추모공연 준비 때문에 도현 형이 정신없이 바빴다.

추모공연은 성대하게 치러졌다. 추모앨범도 디스크 다섯 장의 전집으로 발행되었다. 특이했던 것은 도현 형이 발표한 곡들이 대체로 밝았다는 점이다.

“에일리라는 여인만을 사랑할 수 있었던 나는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도현 형이 무대 위에서 말했다. 정말로 도현 형은 행복한 것 같았다. 그렇게 맑게 웃는 모습은 처음 보았다.

공연 다음날 아침 나는 도현 형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았다. 새벽에 보낸 것인데 자느라고 미처 보지 못했다.

- 성준아, 미안하다. 네게 뒷일을 부탁해야할 것 같구나. 이 문자 보는 대로 집에 와주길 바란다. 고마웠다.

예감이 몹시도 불길했다. 권 교감의 차를 몰고 정신없이 달려갔다. 때문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도현 형이 보였다. 도현 형은 간밤에 내린 눈으로 하얗게 뒤덮인 에일리가든을 하염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층 침실 발코니 난간에 목을 매단 채.

부자로 사는 법

졸지에 부자가 되었다. 자고 일어나니 어찌됐더라, 하는 말 그대로다. 그런데 부자가 되었다 해서 그냥 부자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세상 어느 집단에도 특정한 관습이나 문화란 것이 있다. 소박하게 그냥 생활양식이라 해도 좋을. 또한 다른 집단과 구분되는 정신적 자세, 이를테면 남다른 도덕률 같은 것이 요구되기도 한다. 부자



와 부자가 아닌 자로 양분되는 자본주의사회다. 당연히 부자로 사는 법이란 게 존재할 것이다.

내 의지로 부자가 된 것이 아닌데 그런 게 갖춰져 있을 리 없다. 자칫 천둥벌거숭이로 보이기 십상이다. 하루속히 부자로 사는 법을 학습해야 한다. 그런데 내게 생활양식은 그리 중요치 않을 것 같다. 집안에만 틀어박혀 사는 나로서는 남의 눈에 보이는 부자의 모습은 별 의미가 없다.

우선적으로 내가 갖춰야 할 것은 부자로서의 자의식일 게다. 내가 부자란 것부터 스스로 느껴야 하고, 부자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정립해야 한다. 나아가 여유로운 멋 같은 걸 갖추게 된다면 금상첨화일 테고.

평창동 핑키타운으로 이사 온 날부터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동네를 산책했다. 권 교감이 새로 사준 버버리 체크무늬 셔츠에 루이비통 카디건 걸치는 것을 잊지 않고. 내가 부자임을 실감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었다.

사철나무 울타리 사이로 펼쳐진 넓은 잔디밭의 여유로움, 저택들의 대리석 외관이 주는 중량감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볍게만 느껴지는 공기의 청량함, 그리고 세상살이의 잡다함이 차단된 부촌만의 권위적인 고요함……. 한마디로 쾌적했다. ‘부자=쾌적함’이라는 등식이 제일 먼저 내 의식 속에 자리 잡았다.

핑키타운에는 다섯 가구가 있다. 70년대 말 어느 섬유업체 사장이 북한산 자락인 이 일대 삼천평을 구입해 친구들과 함께 집을 지었다고 한다. 누구나 한 번쯤 꾀보는 꿈을 그는 실현했다. 그런데 막상 섬유업체 사장은 집이 다 지어지기 전에 사망해 살아보지도 못했다. 나머지 네 집도 그 후 주인이 바뀌어 현재 원주민은 하나도 없다.

집집마다 구조는 물론 대리석 외관까지 비슷하다. 그래서 언뜻 다섯 가구가 한 집으로 착각되어 거대한 성채처럼 보인다. 진입로 끝에 1호 저택이 있고, 길 양편에 각각 두 채씩 네 채의 저택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

1호 저택에는 도현 형의 장모인 왕년의 톱스타 유미연이 살고 있다. 그녀가 딸 에일리와 함께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그 집을 구입해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한다. 도현 형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2호 저택을 구입한 것은 에일리와 결혼을 앞두고서였다. 사랑하는 아내를 어머니 곁에서 살 수 있도록 한 배려였을 것이다.

2호 저택은 내 집이고, 내 집과 바로 붙어 있는 3호 저택에는 한의사가 살고 있다. 권 교감 말로는 종로2가에 있는 한의원 원장이다. 부인병 전문으로 꽤 유명하다고 했다. 특이한 것은 젊은 우즈베크 여인과 살고 있다는 점이다. 미모는 물론이고 바비인형 같은 몸매가 죽인다고 소문난 여자란다. 나는 그녀의 모습이 궁금해 수시로 사철나무 울타리 너머 그 집을 훑쳐보곤 있지만, 아직 그런 행운은 찾아오지 않았다.

길 건너 내 집과 마주보고 있는 4호 저택에는 대학교수 부부가 살고 있다. 남자는 나도 인터넷 상에서 잘 알고 있는 ○○대학 신문방송학과 교수다. 몇 년 전 광우병 파동 때 인터넷에 선동적인 글을 올려 갑자기 유명해진 사람이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인기가 대단하지만 내게는 그리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다. 글들이 지나치게 시세 영합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서다.

그는 어떤 사안에 대한 비판적 여론의 조짐이 보이면 바로 틀어쥐곤 직설적인 욕설을 동원해 휘몰아친다. 네티즌들에겐 속 시원하겠지만 자세히 보면 지금 올린 글이 불과 몇 달 전에 올린 글

과 상충될 때도 많다. 예를 들어, 아동성범죄가 큰 이슈가 될 때엔 그런 종자는 당장 단두대여라도 올려 지구상에서 박멸해야 한다고 해놓고는, 요 근래 사형제 부활 논의에 대한 반대 여론이 대두되자 벌써 인혁당 사건의 피눈물 나는 교훈을 잊었냐며 사형제 찬성론자들을 인간백정으로 몰아친다. 어쨌든 나처럼 소심한 인간은 흉내도 낼 수 없는 저돌적인 인간형인 것 같다.

그의 아내도 어느 대학 성악과 교수라 했다. 권 교감 말로는 예전엔 제법 유명했던 소프라노이고 클래식 음악계에선 누구도 감히 거스를 수 없는 문화권력이라고 했다. 문화에 웬 권력인지 나로서는 말뜻 자체가 이해되지 않지만.

끝으로 5호 저택. 이 집에 누가 사는가 하면, 바로 나의 첫사랑 오드리 헵번이다. 이름은 조미영이고 현재 모 방송국 정치부장으로 있다.

나는 삼 년 전 도현 형 집에 들락거리기 시작할 때 이미 조미영이 이 동네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지금으로부터 육 년 전, 조미영의 남편 장성국이 종로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을 결심하고 집을 구할 때 펜싱부 동기인 도현 형이 그 집을 소개해 줬다는 것이다. 장성국은 내게서 오드리 헵번을 뺏어간, 바로 그 잘 생긴 대학선배다.

이사 갈 날자가 잡히고 나서다. 한 동네에 조미영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권 교감에게 얘기해야 할지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지 꽤나 고민됐었다. 조미영과의 관계는 까마득한 옛날의 일이고 여섯 달 만에 끝난 일이다. 더구나 그 후론 단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다.

그런데도 기분이 묘했다. 권 교감에게 말하자니, 웬지 그 사실이 마음에 걸릴 만큼 아직까지도 조미영을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았다. 또 모른 척하자니, 정말 별것도 아닌 일로 권 교감을 속이는 것 같아 마음에 걸렸다.

한동안 망설이고 있는데 권 교감이 먼저 얘기를 꺼냈다.

“자기, 아직도 조미영 그 애한테 특별한 감정 있어?”

“나…난데없이 무슨 소리야?”

“그년 거기서 산대며? 왜 나한테 얘기 안했어?”

“얘기할 거리가 돼야 얘길 하지. 그…근데 왜 욕이야?”

“그년? 욕이 아니라 준말이라며? 이혼까지 했으니 자기 감회가 남다르겠네?”

“쓰…쓸데없는 소리 마. 나랑 무슨 사…상관있다고.”

“이혼은 왜 했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사귀던 애인 차버리고 다른 놈한테 갔으면 잘 살 일이지, 망할 년!”

“그만 해! 우…우…우리가 왜 지금 그 애 얘기를 해야 하는 거야?”

“소린 왜 질러? 우리 둘 다 아는 애니까 한 번 해본 소린데.”

권 교감은 그렇게 한 번 짚어보는 것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그때 이미 나는 빠져들기 시작했다. 끝없는 거짓과 자기기만을 잉태하는, 출구 없는 욕망의 세계로.

조미영은 신문방송학과 87학번이다. 그 애는 정경대와 문과대 87학번 사이에서 거의 여신과도 같은 존재였다. 워낙 예뻐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광채가 느껴졌다. 새까만 눈동자가 반짝이는 커다란 눈은 정말로 매혹적이었다. 그리고 그

애의 얼굴은 항상 밝고 자신감이 넘쳤다. 말투마저 거침이 없었다. 한마디로 부잣집 외동딸 같은 인상이었는데, 실제로 그 애는 인천에서 제일 큰 개인병원 원장 딸이었다.

모두들 하루 종일 수업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신방과 애들이 부러워 몸살을 앓았다. 그 애가 타임반에 가입하자 다음날 신입회원이 세 배로 늘어났다.

그런데 어느 날 타임반 모임에서 조미영이 내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너 어쩔 그렇게 영어를 잘 하니? 부러워 죽겠다.”

나는 아무 대꾸도 못했다. 너무 떨리기도 했지만 그 애에게서 나는 로션 향에 이미 정신이 혼미해졌다.

지난 번 모임에서 내가 타임 기사를 해석하는 걸 그 애가 보고 놀란 것 같았다. 사실 타임반의 어느 선배들보다도 내 실력이 낫다고 자부할 만큼 영어 하나만은 자신 있었다. 중2때 학교를 그만둔 뒤부터 골방에서만 처박혀 살아온 내게 영어는 유일한 친구였다.

“타임반에 들어오긴 했는데 아무래도 계속 못할 것 같아. 한 페이지 읽는 데만 몇 시간씩 걸리니…….”

“아냐. 누…누…누구나 타…타임 처음 읽는 애들은 다 그래. 여…여…영어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매…매겨진 트…트…특유의 문체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거야. 꾸…꾸준히 몇 달만 하면 괜찮아져.”

나는 간신히 입을 떼었다. 평소보다도 몇 배나 말을 더 더듬었다. 그나마 내가 사람들에게 간혹 해주는 준비된 멘트라 다행이었다. 그런데 바로 기적이 일어났다. 조미영이 그 아름다운 눈으로

애원하며 내게 말했다.

“혹시 시간 되면 나랑 같이 일주일에 한 번만 타임 강독해주지 않을까?”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나와 조미영의 조합에 대해 87학번 동기들은 노골적인 불쾌감과 비난의 눈초리를 보냈다. 조미영이 나를 남자친구로 삼은 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감상적 휴머니즘의 일시적 발로라고 동기들은 분석했다. 그리고 이를 사양하지 않은 나는 후안무치한 인간이 되어버렸다. 아마도 그 애들이 제대로 보았을 것이다. 아니면 지나치게 자조적인 표현일지 몰라도 여러모로 만만한 내가 애완동물로 삼기에는 적합했을지도.

하지만 뭐였던 무슨 상관이라. 나는 캠퍼스 잔디밭에 그 애와 나란히 엎드려 타임을 같이 읽었고, 학교 앞 분식집에서 노란 단무지를 서로 입에 넣어주며 라면을 먹었다.

흔히들 사랑에는 기적과도 같은 힘이 있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식물인간처럼 방구석에 틀어박혀 어머니밖에 모르던 내가 그 애 앞에선 그런대로 사내노릇을 했던 것 같다. 지금 돌이켜봐도 그땐 나날이 기적의 연속이었다.

조미영은 속된 말로 까진 애였다. 그건 전적으로 내가 보기에 그랬다는 것이지 객관적인 판정은 물론 아니다. 당시 나는 또래 남녀가 어떤 진도로 연애를 진척시키는지 전혀 몰랐으니까.

“너 키스해봤지?”

어느 날 빈 강의실에서 나란히 앉아 타임을 읽고 있었는데 그 애가 난데없는 질문을 했다.

“어…….”

나는 당황해서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한 표정으로 답했다. 그러자 그 애가 내 허리를 껴안고는 입술을 내밀며 눈을 감았다. 무척 놀래긴 했지만

나도 볼 건 다 보고 알 건 다 알았다. 입술을 내밀어 그 애의 입술에 갖다 대곤 눈을 감았다. 그런데 잠시 후 그 애가 나를 밀치더니 깔깔대며 웃었다.

“너 키스 안 해봤구나?”

“어…….”

너무나 창피했다. 그야말로 쪽팔려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다. 그런 나를 그 애가 다시 껴안았다. 그리곤 키스가 얼마나 감미롭고 행복한 것인지, 우리 삶에서 얼마나 축복받은 행위인가를 가르쳐주었다.

그 후로 우린 사람들의 눈으로부터 가려졌다고 생각만 되면 키스를 했다. 아마도 조미영은 키스마니아였던 것 같다.

“너랑 하는 키스가 제일 좋아. 정말 최고야.”

그 애의 찬사에 나는 감격했다. 비록 내가 모르는 누군가와 키스와 비교되고 있는 것이라 해도.

키스에도 진도가 있었다. 어느 날 조미영이 슬그머니 내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브래지어 속으로 밀어 넣었다. 내 평생에 그 순간만큼 충격적이었던 때는 없다. 숨이 멎어갈까 봐 딱 멈춰섰다. 신비스럽던 그 촉감, 손끝에서도 느껴지는 향기, 그리고 견잡을 수 없이 타오르던 내 영혼의 불꽃……. 신의 축복과도 같았던 그때의 선물



만으로도 조미영의 그 어떤 죄도 영원히 사면 받아야 마땅하다. 적어도 나에게서만큼은.

부조화는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이 세상 이치다. 모든 존재들 사이엔 어떻게든 서로 조화를 이루려는, 말하자면 구심력과도 같은 힘의 작용이 있다. 87학번 동기들의 끊임없는 이의 제기과 저주에 신은 응답했다. 나의 오드리 헵번이 다른 사내에게로 떠나갔다.

사권 지 다섯째 달이 되던 어느 날, 조미영이 갑자기 펜싱부 연습실에 가보고 싶다고 했다. 펜싱복을 입고 칼을 든 내 모습이 무척 멋있을 것 같다고도 했다. 나는 의기양양하게 그 애를 데리고 연습실로 갔다.

연습실에는 마침 선배인 장성국이 다른 선배와 비스프 위에서 사브르 종목을 연습하고 있었다. 이름보다는 테리우스라는 별명으로 더 자주 불리는 법학과 4학년이었다. 184센티미터의 장신에다 흰 얼굴, 어깨까지 흘러내리는 머리, 오독 선 콧날……. 사내인 내가 봐도 반할 만큼 잘 생긴 사내였다.

내가 웬 여학생과 함께 연습실로 들어서자 장성국이 연습을 멈추고 돌아섰다. 마스크를 벗고 긴 머리카락을 흔들어 날리며 조미영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네 여자 친구냐?”

“예.”

“야, 성준이 보기완 달리 능력 있구나.”

그리곤 나와 조미영에게 저녁을 사주겠다고 했다. 전에 없던 일이었다. 나는 그 애와 함께 장성국을 따라나섰다. 학교 앞 경양식 집에서 생맥주까지 곁들여 함박스테이크를 잘 얻어먹었다. 그 뒤 조미영과 장성국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모른

다. 다만 한 달 쯤 후 조미영이 내게 말했다.

“우리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자.”

그게 전부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탁자 위에 놓인 커피 잔만 노려봤고, 그 애는 잠시 앉아 있다 조용히 가버렸다. 그리고 테리우스의 공식적인 여자가 되었다.

장성국은 그해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땀고, 다음해에 사법고시에 패스했다. 조미영은 졸업 후 방송국 기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둘은 나보다 일 년 전쯤에 결혼했다. 검사였던 장성국은 종로구에 현 야당 국회의원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고, 그 일 년 후에 갑작스런 이혼 발표로 잠시 세상을 시끄럽게 했다.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125표 차로 간신히 당선되어 현재 재선의원이다.

조미영도 방송기자로서 승승장구했다. 한때 9시뉴스의 앵커로까지 물망에 오른 적도 있다. 그 당시 남편이 현역 정치인이란 점 때문에 결국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그 후엔 조미영에 대해 별다른 소식을 들은 게 없다. 현재 방송국 정치부장으로 있다는 사실만 알 뿐이다.

지금 나는 조미영에게 별다른 감정이 남아 있지 않다. 조만간 마주치게 되겠지만, 그때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며 인사를 나눌 것 같다. 잘 지냈니? 여전히 예쁘구나, 하며. 물론 실제 어찌 될지는 만나봐야 알 것이다. 아무튼 이제 와서 조미영에게 새삼 서운하던 감정은 남아 있지 않다.

오히려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은 당시 내 자신에 대해 느꼈던 슬픔이다. 조미영이 내게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자고 했을 때, 당연한 일이라고 자위하며 아무 말도 못했던 내 자신에 대한 연민이다. 빼앗긴 자로서, 루저로서, 영원한 찌질이로서 평생 살아야만 할.

* * *

핑키타운 사람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4호 저택의 교수 부부가 저녁때 가볍게 와인 한 잔 하자며 초대했다. 새 입주자가 어떤 인간인지 궁금했나 보다.

권 교감이 그 얘길 듣고 바짝 긴장했다. 저녁 내내 옷장을 헤집어보더니 결국 한마디 내뱉곤 옷장 문을 걸어챘다.

“비싸게 주고 산 옷들인데 막상 입을 만한 게 없네.”

“그...그냥 입던 대로 입고 가. 어려운 자리도 아닌데.”

“쉬운 자리도 아냐. 앞으로 살면서 깔보이지 않으려면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결국 권 교감은 일을 벌였다. 다음날 학교도 조퇴하고 백화점과 미용실을 다녀왔다.

“자기야, 나 어때? 돈 좀 벌었는데. 머린 이대 앞까지 가서 한 거야.”

권 교감이 내 앞에서 한 바퀴 빙 돌며 말했다.

내 눈에는 영 아니었다. 조금이라도 날씬해 보려고 검정색 실크 원피스를 사 입은 것 같은데 너무 딱 끼고 길어도 짧았다. 머리도 전에 했던 보글보글한 파마머리가 훨씬 나왔다. 머리카락은 모두 퍼서 바짝 치켜 자른 모습이 젊은 날 포르노 영화에서 보았던 여자 교도관이 연상되었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좋은데. 멋있어.”

“정말?”

권 교감이 두 눈을 반짝이며 다음에 이어질 내 말을 기대했다. 칭찬은 구체적으로 해줘야 효과가 큰 법이다.

“이...있잖아? 예전에 당신하고 같이 봤던 영

화……. 제…제목이 뭐였더라? 아, 어 퓨 굿 맨!
그 영화에서 데…데미 무어가 맡았던 해군장교
이미지…….”

“에이, 데미 무어라니 빵을 쳐도 좀 심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권 교감의 표정이 무지
행복해 보였다. 한 바퀴 더 돌면서 엉덩이를 뒤
로 쪽 빼는 애교 필살기까지 펼쳐보였다. 그리곤
쇼핑백에서 넥타이를 꺼내 내밀었다.

“자기, 오늘 이거 매고 가.”

“시…시…싫어. 바로 옆집에 가는 데 무슨
네…넥타이씩이나?”

“아냐. 괜히 가볍게 보일 필요 없잖아?”

결국 일 년에 한두 번 입을까말까 한 정장 차
림을 하고 4호 저택으로 갔다. 그 집 부부와 한
의원 원장 부부가 거실에서 우릴 기다리고 있었
다. 1호의 유미연에게는 연락도 안했고, 5호 조
미영은 바빠서 참석 못한다는 전화가 왔었다고
했다.

그들은 모두 가벼운 평상복 차림이었다. 네 사
람 모두 우릴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마치 난
데없이 나타난 곡마단의 피에로라도 본 듯이. 눈
앞이 아찔했다. 욕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가볍게 와인 한 잔 하자는 말은 겸손을 드러내
는 의례적 표현인 줄 알았다. 그런데 진짜로 가
벼웠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식당으로 옮겨갔더
니, 식탁 위엔 모제렐라 치즈 샐러드 한 접시와
유리그릇에 담긴 한 움큼의 아몬드가 전부였다.
나와 권 교감은 당연히 저녁을 굶고 왔다. 좀 늦
은 시각인 8시쯤 오라기에 퇴근이 늦는가보구
나, 라고만 생각했다.

“식사는 하고 오셨지요?”

친절하게도 안주인인 소프라노 한유경 교수가



물어주었다.

“그럼요. 지금 몇 신데요.”

사회경험이 나보다는 풍부한 권 교감이 우아
한 미소를 지어보이며 두 어깨를 쫓긋했다.

“한 교수가 얼마 전에 파리 콩쿠르에 심사위원
으로 갔다 오면서 사온 샴페인입니다. 그 유명한
그랑 씨에르입니다. 강 작가 내외분을 환영하는
뜻에서 큰맘 먹고 따기로 했습니다.”

바깥주인 남재욱 교수가 샴페인 한 병을 내밀
며 말했다. 누구한테 보내는 건지 모를 링크까지
해보였다.

“정작 프랑스에서는 샴페인을 쿠프 글라스로
마시지 않는다고 하네요. 하지만 저는 촌스러워
서 그런지 샴페인은 역시 쿠프 글라스로 마셔야
제 맛이 납니다.”

남재욱이 샴페인 병마개를 딴 뒤에 주둥이가
넓은 유리 술잔에 따르면서 말했다. “그런데 이
쿠프 글라스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
십니까?”

남재욱이 야릇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 이 유
명한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는 다들 아시죠? 이
말의 주인공인 바로 그 마리 앙투아네트가 자기
젓가슴으로 금형을 떠서 그 모양대로 만든 유리
잔에서 비롯된 거랍니다.”

남재욱이 두 손으로 커다란 젓가슴 모양을 만 들어 보이며 말했다. 그리고 말끝에 흘끗 제냐의 젓가슴을 쳐다봤다. 내 눈도 영겁결에 그의 시선을 따라 제냐의 젓가슴으로 향했다. 그야말로 환상적이었다. 이럴 때 바로 죽인다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이다. 허리는 한 움큼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젓가슴이 어찌 저리도 풍만하고 육감적일 수가 있을까? 권 교감은 무릎으로 내 허벅지를 찌르지 않았으면 넋을 잃고 계속 쳐다보고 있었을 것이다.

“자, 강성준 작가 부부의 핑키타운 입성을 축하하며 건배를 합시다. 우리의 핑키타운을 위하여!”

“위하여!”

나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고 모제렐라 치즈 샐러드를 조금 덜어다 먹었다. 음식이 조금 들어가 위장에 자극을 주자 견딜 수 없이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다. 다시 샐러드를 덜어먹으려는데 권 교감이 허벅지를 또 찔렀다. 그때 친절한 한유경이 내 접시에 샐러드 한 수저를 덜어주며 미소를 지었다.

“모제렐라 치즈 좋아하시나 봐요.”

“예.”

나는 황송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만 강 작가님 작품을 제가 아직 읽어보지 못했어요. 장르 문학을 하신다면서요?”

한유경이 우아한 태도로 나에게 대한 관심을 표현했다. 아마도 삼류에 대한 비아냥거림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저 황송하다는 표정으로 연신 고개를 숙였다.

“무…무…문학은요? 그저 그런 애…애기책입니다.”

“어머, 겸손하시네요.”

나는 빨리 집에 돌아가 라면이라도 끓여먹고

싶었다. 그런데 남재욱과 최도철 둘 다 다변가였다.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졌다.

결국 최도철이 제냐를 시켜 자기 집에서 발렌타인 30년산 한 병을 가져왔고 한유경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비스킷 한 봉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권 교감은 조금도 자세를 흐뜨리지 않은 채 미소를 지었다.

발레타인이 반쯤 비워지자 드디어 화제가 대통령선거로 넘어갔다. 두 사람의 말투에 점점 열기가 묻어나기 시작했다. 나는 두 사람의 대화에 조금이라도 끼어들 생각이 없었다. 정치엔 별 관심이 없는 나로서는 그럴 주제도 못되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말끝마다 “안 그랬습니까? 강 작가.”를 후렴처럼 붙이며 자기편으로 끌어들이지 못해 안달이 났다. 그때마다 나는 애매한 미소를 지으며 전전긍긍해야만 했다.

길게 듣지 않아도 두 사람의 정치적 이념적 성향은 확연히 드러났다. 최도철은 극우 쪽에 가까운 우파이고, 남재욱은 좌파인 것 같다. 한의사들 중에서 소득이 열 손가락 안에 든다는 최도철이 우파인 것은 그럴만했다. 그런데 평창동에서도 제일로 손꼽히는 고급주택에 사는 재력가인 남재욱이 좌파 성향을 띠는 건 좀 의아했다. 게다가 남재욱이 하는 말 중엔 깜짝 놀랄 만큼 급진적인 주장도 있었다.

내가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있는 사이에 일이 터졌다. 출판에서 오가는 정치논쟁 끝에 흔히 벌어지는 일이다. 누군가가 욕설과 함께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가거나 술잔을 뒤엎던지 하며 파장으로 이어진다. 상류층 동네라고 별 다를 게 없었다. 발단은 최도철에게서 비롯되었다.

“이거 순 빨갱이 아냐?”

무슨 얘기 끝인지는 모르지만 최도철이 고향을 질렀다. 남재욱이 바로 욕으로 받아쳤다.

“뭘야? 이 새끼야!”

“나이도 어린놈이 어디다 대고 욕이야? 이런 호래자식!”

둘 다 별떡 일어서서 고향을 지르고 술잔이 엮어졌다. 마리 앙투아네트의 아름다운 젓가슴 하나가 박살이 났다. 나는 당황해서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다.

바로 그때 매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데스 마스크의 굳어진 미소를 띤 채 얌전히 앉아 있던 권 교감이 별떡 일어서며 고향을 지른 것이다.

“그마아아안---!”

권 교감의 거대한 울림통을 통해 터져 나온 포효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전설적인 로커 체스터 베닝턴이 혼신을 다해 토해낸 그로울링 조차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강렬했다. 4호 저택이 울림과 동시에 고압전류에 감전되는 느낌이었다. 나를 포함해 식탁에 앉아 있는 다섯 사람 모두의 동작이 일시에 멈춰지며 정지화면 모드로 들어갔다.

“그만, 그만들 하세요! 점잖으신 분들이 뭐하는 짓입니까!”

권 교감은 손가락으로 최도철과 남재욱을 차례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두 사람을 노려보는 눈빛이 바로 잡아먹기라도 할 듯이 이글거렸다.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을 폭발적인 카리스마에 두 사람은 기가 질린 듯했다. 교감선생님 앞에 무릎 꿇린 학생들처럼 바짝 움츠린 채 눈길을 어디에도 두지 못했다.

“한 동네에 사시는 분들끼리 이러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 각 분야에서 최정상에 계신 분들만 모여 사는 곳이 아닙니까? 혹시라도

누가 이런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슬프고 절망스럽겠습니까? 어서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세요.”

권 교감의 목소리가 갑자기 어머니의 자애로운 톤으로 바뀌었다. 괜히 눈물이 나오려할 만큼 감동적인 음색이었다. 신병훈련소에서 좌로 구르고 우로 구르며 초죽음이 되도록 기합을 받고 난 뒤 〈어머니 은혜〉를 합창했을 때의 바로 그 느낌이었다. 나중에 돌이켜보니 권 교감이 했던 멘트는 생각할수록 웃기는 얘기였지만, 그때 전혀 그런 생각이 들 수 없을 만큼 숙연했다.

“제가 보기엔 두 분 중에서 남 교수님께서 조금 연배가 낮으신 것 같은데 먼저 사과하세요. 아무리 화가 나셔도 그렇지, 대한민국 최고지성의 입에서 그런 쌍욕이 나왔다는 사실을 누가 믿겠습니까?”

권 교감이 남재욱에게 어서 일어나라고 손짓을 했다. 그러자 남재욱이 엉거주춤 일어나 최도철에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최 원장님.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봅니다. 술김에 한 실수라 여기시고 용서하십시오.”

“이제 최 원장님도 사과하세요. 먼저 문제를 일으킨 분은 최 원장님이십니다.”

권 교감이 최도철을 바라보며 눈짓을 보내자 그도 엉거주춤 일어섰다.

“남 교수 미안합니다. 내 부친께서 월남한 실향민이시라 그런 문제엔 좀 과민합니다. 어쨌든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권 교감이 기특하다는 듯이 두 사람을 바라본 뒤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다.

“비 온 뒤에 땅 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화해들 하셨으니 앞으로는 더 화목해질 겁니다. 조만간 제 집에서 집들이 한 번 하겠습니다. 그

때 체면 다 내던지고 이웃사촌끼리 신나게 놀아 보지요. 오늘은 이쯤해서 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얼이 빠져 있는 두 집 부부는 아무 대담도 못하고 물끄러미 권 교감만 쳐다보았다.

“자기야, 가자.”

권 교감이 바로 내 손을 잡아끌고 밖으로 나왔다.

“별거 아니네. 그치? 차만 좀 비싼 걸로 바꾸면 되겠다. 아냐. 학교 선생이 비싼 차 몰고 다닐 순 없으니까 이참에 자기한테 그랜저 한 대 뽑아 줄게. 내친김에 예쿠스로 할까?”

권 교감이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핑키타운을 둘러보며 말했다.

나는 너무도 감동스러워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보통은 아니라고 생각은 해왔지만 권 교감이 이토록 대단한 사람일 줄은 몰랐다.

아무튼 나와 권 교감은 그렇게 입주 신고식을 치르고 당당하게 상류사회에 입문했다. 며칠 후 나는 또 한 번의 호된 신고식을 치러야 했지만.

권 교감이 일박이일 일정으로 강화도에 갔다. 교감선생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나 워크숍이 고맙게도 일 년에 서너 차례 이상 있다. 전업주부인 나에게 세끼 밥을 안 해도 되는 이런 날들은 축제와도 같은 날이다.

저녁 무렵 나는 오랜만에 상가지역으로 내려갔다. 육중한 성채에서 벗어나니 기분이 들떴다.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여기저기 어슬렁거리다 호프집에 들어가 생맥주와 치킨을 시켜 먹었다. 500CC 세 잔이나 마셨으니 꽤 마신 셈이다. 콧노

래까지 흥얼거리며 핑키타운 단지로 올라갔다.

단지 입구에 이르렀을 때였다. 길 건너편에 택시 한 대가 서며 한 여인이 내렸다. 가로등 불빛에 언뜻 얼굴이 비친 그녀는 조미영이었다. 이십오 년 만에 보는 얼굴이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나도 모르게 등을 돌렸다. 그리고 돌아섬과 동시에 후회를 했다. 내가 피할 이유가 없다. 손을 내밀며 말해야 한다. 오랜만이다. 여전히 예쁘구나. 하지만 생각뿐이지 그럴 엄두가 나지 않았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다시 상가로 내려가기로 하고 걸음을 옮겼다.

“성준아, 너 강성준 맞지?”

몇 발짝 옮기지도 못했을 때 등 뒤에서 조미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숨이 멎으며 걸음이 멈춰졌다. 나는 크게 숨을 내쉬 뒤 뒤돌아섰다. 조미영이 내 얼굴을 확인하곤 길을 건너왔다. 취했는지 걸음걸이가 흔들렸다.

“왜 날 피하니? 우리가 그럴 사이니? 이십 년도 훨씬 지나서 마주치고도 서로 모른 체 해야 되는, 그런 관계냐고?”

대뜸 조미영이 화부터 냈다. 나는 당황했고 또한 부끄러웠다.

“미…미…미안해. 나도 모르게…….”

“너 이 동네로 이사 왔단 소린 들었어. 반가워. 진심이야.”

이번엔 조미영이 손을 내밀며 웃어보였다. 예뻐다. 내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이십오 년 전의 모습보다도 훨씬 예뻐다. 나는 오래 전부터 준비해 둔 멘트를 간신히 입 밖으로 내놓았다.

“나도 바…바…반갑다. 여전히 예…예…예쁘구나.”

“애는……. 예쁘긴? 다 늙어 시든 지가 언젠데.”

예쁘다는 소리에 조미영이 감격했다. 얼마나

예쁜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싶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투적인 것 말고는 인상적일만한 비유가 떠오르지 않았다. 오드리 헵번에게 상투적인 찬사는 모독이나 다름없다. 차라리 침묵하는 편이 좋다.

“우리 술 한 잔 하자. 저 밑에 곱창 맛있게 하는 집 있어. 괜찮지?”

조미영이 너무도 스스럼없이 내 손을 잡아끌어 팔짱을 끼며 말했다.

처음에만 잠깐 당황했을 뿐이다. 채 몇 걸음도 걷기 전에 그 애와 나란히 팔짱을 끼고 걷는 내 모습이 당연하게까지 느껴지는 게 오히려 놀라웠다.

언덕길을 한참 내려가다가 취기가 오르는지 조미영이 내 팔을 낀 채로 무릎이 꿇였다. 그 순간 조미영의 젓가슴이 팔뚝 위로 놀리며 아찔한 촉감이 전해왔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랫도리가 한순간에 부풀어 올랐다. 누구도 알아챌 사람 없지만 무척이나 민망하고 당혹스러웠다. 무엇보다 걸음을 뗄 수 없었다.

“왜? 내가 취한 것 같아? 나 안 취했어. 아직 멀었다고.”

언덕길에 갑자기 멈춰선 내게 조미영이 중얼거렸다.

“아...아...아니야. 가...가자.”

그런데 다시 발걸음을 떼는 순간 묘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웬지 어떠한 열등감도 없이 조미영을 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며 겨드랑이에 날개라도 돋은 듯이 몸이 가벼워진 것이다.

나는 조미영과 다시 만날 이유도 그럴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그 애와의 운명적인 해후를 간절하게 기다려왔는지도 모른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의미조차 없던 내가 이제 소설가라는 명함도 얻으며 그런대로 사회생활을 해오고 있다 해도, 예전엔 결혼이란 걸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내가 지난 이십여 년 동안 남 보기에 정상적인 가정을 꾸려왔다 해도, 염치없는 돈벼락을 맞았든 간에 이젠 대한민국 상위 텐 프로의 재력을 갖춘 평창동 주민이라 해도, 조미영이 내게 이젠 네 병이 다 나았어, 너는 정상이야, 내 사내가 된데도 전혀 손색이 없어, 라고 말해주기 전까진 루저이자 찌질이라는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고 믿고 있었는지도.

곱창 집에서 소주 몇 잔이 들어가자 조미영은 아까 했던 얘기를 다시 꺼내며 화를 냈다.

“너 아까 날 왜 피했니? 날 알아보고도 내 앞에서 등을 돌렸잖아? 우리가 그럴 사이니? 그럴 관계냐고?”

아깐 정신이 없어 대꾸할 겨를도 없었지만, 조미영이 왜 화를 내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피해야 할 이유는 물론 없지만 내가 피했다 해서 이렇게 화를 내며 따질 관계도 아니다. 은근히 화가 치밀었다. 날 차버린 여잘 다시 보니 새삼 쪽팔려서 그랬다. 관계라니? 우리에게 그런 게 남아 있냐? 나는 조미영에게 따졌다. 속으로만.

“미...미...미안해. 아까 미안하다고 했잖아.”

“미안하다고? 좋아. 사과 받아줄게. 근데 넌 정말 여전하구나. 옛날 그대로야. 하나도 변한

게 없어.”

저엔 도대체 무엇이 여전하다는 걸까? 마흔다섯 살이나 먹은 내 겉모습이? 아니면 만만한 게? 여전히 나를 함부로 대하는 조미영이야말로 변한 게 없다. 그런데 내가 화가 나는 건 조미영의 태도보다도 그 애 앞에서 여전히 찢찢맬 수밖에 없는 찢질한 내 모습이다.

“그런데 왜 이혼했냐고 묻지 않니? 안 궁금해?”

“프…프…프라이버시잖아.”

“프라이버시?”

조미영이 코웃음을 쳤다.

“너에겐 타인의 프라이버시에 불과할 뿐이라 그거야? 너 아직도 날 미워하니?”

미워하냐고? 여전히 그 애는 잔인했다. 아무 일도 아니란 듯이 우리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자, 답답하게 말했던 그때처럼.

“그러긴 너무 오…오래된 얘기다.”

“장성국 그 자식 국회의원 되자마자 어떤 년 하고 바람을 뒀어. 다른 놈들은 몰라도 그 인간은 절대 그래선 안 되는 거 아냐? 안 그래?”

술이 많이 취한 것 같다. 조미영이 번지수를 영 잘못 찾고 있다.

“너한테서 서…서…성국이 형 얘기 듣는 거 불편하다.”

“아직도 너 장성국한테 콤플렉스 갖고 있지? 그건 아니지. 그 자식 아주 형편없는 놈이라니까.”

벌떡 일어나서 조미영의 뺨을 한 대 갈기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그때처럼 소주잔만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나 성준이 네 생각 많이 했어. 아주 많이.”

조미영이 갑자기 킬킬댔다.

“그래도 너랑 사귄 때가 좋았던 것 같아. 너랑 한 키스는 정말 최고였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마…마…많이 취했다. 그만 올라가자.”

조미영이 일어서서 손을 내저었다.

“아냐. 나 혼자 올라갈래. 넌 따로 올라가. 너랑 같이 올라가는 걸 윤덕이가 보면 어찌라고? 난 그 애한테 한 대만 맞아도 즉사할 거야.”

조미영이 비틀거리며 곱창 집 밖으로 나갔다.

미칠 것만 같았다. 소설가라는 명함도 얻으며 그런대로 사회생활을 해오고 있다 해도, 남 보기에 정상적인 가정을 꾸려왔다 해도, 대한민국 상위 텐 프로의 재력을 갖춘 평창동 주민이라 해도, 조미영 그 애 앞에서 나는 여전히 루저이자 찢질이일 수밖에 없었다.

남은 소주를 단숨에 들이켜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상가거리를 무작정 쏘다니다 노래방으로 들어갔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짓밖에 없었다. 스피커의 볼륨을 최대로 올려 달라 하고 마이크를 움켜쥐었다. 그리고 고래고래 질러대기 시작했다.

*이젠 잊어야만 하는 내 아픈 기억이
별이 되어 반짝이며 나를 흔드네
저기 철길 위를 달리는 기차의
커다란 울음으로도 달랠 수 없어
나는 왜 여기 서 있나
오늘 밤엔 수많은 별들이 기억들이
내 앞에 다시 춤을 추는데*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



우리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요트동아리 위세일

자기 소개 및 동아리 소개 부탁 드리겠습니다.

요트동아리 담당자 항만사업팀 나현지 대리입니다. 해양레저 학습동아리 '위세일(we sail)'은 2020년 1월 7일 발대식과 함께 출범하였습니다. 해양레저 활동을 통한 직원복지 증진 및 공사 내 친목도모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외에도 신사업진출을 위한 공사 직원 전문지식 배양 및 현장경험을 높이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위세일의 주요 활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난 6월에는 동아리 1차 기수가 조종면허 1급 취득에 성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동아리 멤버 2차 기수들의 조종면허 취득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또한 6월 26일에는 경기요트학교를 방문해 덩기요트 입문반 수업에 동아리 외 직원들도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 준비한 행사라 하나부터 열까지 고민도 많았고

놓치는 부분도 많았지만 사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저 역시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밖에 위세일만의 2020년 계획은 또 무엇인가요?

동력수상 면허 취득을 위한 공동 교육 및 해양레저 산업 관련 스터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해양레저 세미나와 국제보트쇼에도 참석해 볼 생각입니다. 국내외 선진 마리나가 있다면 견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아리 홍보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위세일이 지난 덩기요트 수업으로 회사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함께 자격증 공부도 하고 해양스포츠도 즐길 동아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요트와 함께 즐거운 여름나기 하실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자들도 오랫동안 재밌게 일할 수 있는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세반여’ 동아리는 그런 고민과 함께 시작되었다. 경영기획팀 박정원 대리는 ‘세상의 반은 여자다’라는 문구의 앞글자를 따와 ‘세반여’라는 동아리를 만들었다. 여성인재 육성 및 일과 가정 균형 직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경기평택항만공사는 2016년에 이어 2019년에도 여성가족부에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다. 인증은 3년간 유효하다.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과 직장 내 교육, 유연근무 확대와 임직원의 문화 체험 기회 등을 고려해 선정하는 인증 제도다.

공사의 여성비율은 35%(여성 관리자 비율 50%) 내외이며, 타 공공기관 대비 높은 여성 직원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동아리 담당자 박정원 대리는 “여성이 주체가 되는 동아리지만 남성 직원들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9년에 열린 커피 인문학 교양강좌나, 베토벤 합창 교향곡 공연 단체관람에는 남자 직원들도 다수 참석했다. ‘세반여’는 이외에도 영화 단체관람, 여성 관리자 리더십 포럼 참석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코로나가 아직 일어나기 전인 작년 가을, 여성 동아리 모임에 처음 참석했다. 영화를 보기 전 만찬

장소에 모인 회원들은 쉴 새 없이 깔깔 거리며 대화를 나눴다. 여자들이 모이니 웃음소리와 즐거운 이야기가 시끌벅적하다.

참석자 이영분 사원은 “여자들끼리 모이니 여자라 쪼개 되는 사내 고충도 거리낌 없이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자리가 된 것 같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2020년에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 활동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2019년 설립돼 활발한 친목 활동이 이어져 온 것과 달리 아쉬운 상황이다. 박정원 대리는 “비록 금년도는 대면 또는 야외 활동이 쉽지 않아 동아리 활동을 기획하지 못했다. 비대면 접촉이 유행인 만큼 온라인 활동을 통한 친목 도모 방법을 구상 중에 있다”고 전했다.

올해만 해도 벌써 공사에는 4명의 여직원이 입사했다. 박정원 대리는 “2020년 여성 신규입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아리 가입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직원들의 행복감 상승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임직원의 마인드도 동아리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왔다. 가정과 직장생활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기업 항만공사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글, 정리 김혜정



스티븐 코비 지혜의 말

살고 사랑하고 업적을 남겨라



경영기획팀 주임
남지현

현 책에서는 살아가면서 지나칠 수 없는 단어들(사랑, 책임, 용기, 균형 등)에 따라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그렇기에 챕터별로 줄거리가 각자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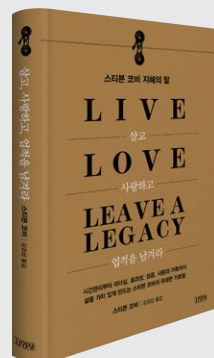
모든 이야기가 삶에서 중요하고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모든 이야기의 줄거리를 서술하기에는 내 팔목이 너무 아프므로, 그중에 내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선택의 원칙'과 '승-승의 원칙'에 관해 줄거리를 짚막하게 소개하고 내 생각을 어필하고자 한다.

책 저자인 스티븐 코비가 말하길, 나의 모든 감정은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라 말한다. 내가 화가 나는 것도, 내가 슬픈 것도, 내가 짜증이 나는 것도 내가 그 감정을 느끼기를 허용했기에 그러한 감정이 느껴지는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처음에 나는 '무슨 허황한 이야기이지?'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나의 한 경험을 비추어 생각해보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다. 종종 우리는 누군가와 싸울

때 화가 나다가, 싸운 이가 아닌 타인과 이야기할 때는 또 차분히 이야기하

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즉, 나도 그 감정을 허용할 수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무의식적으로 자각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타인의 기분에 쉽게 영향을 받았던 내가 이제는 내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영향을 받게 되었다.

두 번째로 언급할 줄거리는 '승-승의 법칙'이다. 나는 어떤 결과를 내든 승-패 혹은 패-승만 있는 줄 알았다. 그 이유는 누구든지 똑같이 가져갈 수 없으며, 현 대안에서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나 같은 경우에도 이기는 것에만 집착하여, 사람도 잃고 감정도 상하는 일이 발생하고는 했다. 이 책을 통해 본 우리의 사회는 제3의 대안을 통해 얼마든지 우리는 서로 이기는 전략을 쓸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모든 것을 얻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였다. 사실 나도 제3의 대안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렇지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3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했으며, 앞으로 어떤 것을 협의하거나 협약해야 할 때, 제3의 대안을 통해 서로가 승-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내어 보겠다고 다짐하게 된 내용이었다.



NEWS

구내식당 NEW OPEN



7월 6일, 마린센터의 구내식당이 새로운 주인을 찾아 새 단장했다.

‘푸드락 코리아’는 단체급식 전문업체로 안전하고 신선한 식자재만을 사용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곳이다. 국내산 쌀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축수산물을 국내산 원산지임을 표기했다. 하물며 김치에 들어가는 고춧가루까지 국내산을 사용하는 점 역시 운영자의 신념이 보이는 부분이다.

흔히들 건강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면, 맛을 놓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을 한다. 하지만 첫술을 뜨자 그것은 기우에 불과했다. 정성스럽고 소담스런 찬과 자극적이지 않은 맛이 마치 집에서 어머니가 차려주신 집 밥을 연상케 했다.

맛과 건강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은

‘마린센터 맛집’ 이었다.

점심식사를 맛있게 마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한 직원은 “그동안 있었던 구내식당이 폐쇄되면서 매 끼니를 때우기가 여간 힘든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 맛집

이 생겨 좋다”라는 인사와 함께 함박웃음을 보였다. *가격정보 : 6천원

주한에콰도르대사관 대표단 초청 현장 설명회 개최

7월 6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정부의 한국-에콰도르 FTA 추진 연계 평택항 현장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철저한 방역 조치 물론 빼놓지 않고 실시되었으며 간담회부터 시찰까지 차례대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한국과 에콰도르는 2020년 에콰도르 대통령 선거 이후 FTA가 체결될 전망이다.

에콰도르에서는 우리가 초코렛으로 먹고 있는 카카오의 주원료를 가져오고 있다. 이외에도 평택항 콜드체인 기업 스미후루를 통해 바나나가 들어와 신세계 이마트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또한 새우, 커피, 참치, 연어 등 농수산 가공품과 원유, 동괴 등도 에콰도르에서 들어오고 있다.

에콰도르 역시 한국에 기대하는 바가 있다. 한국에는 정보화 관련 기술 수요가 많아 이들 정보 기술 및 관련 기업들에 대한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 앞으로 평택항을 통해 에콰도르와의 활발하고 역동적인 무역 비즈니스가 기대된다.



경기평택항만공사 대학생 인턴을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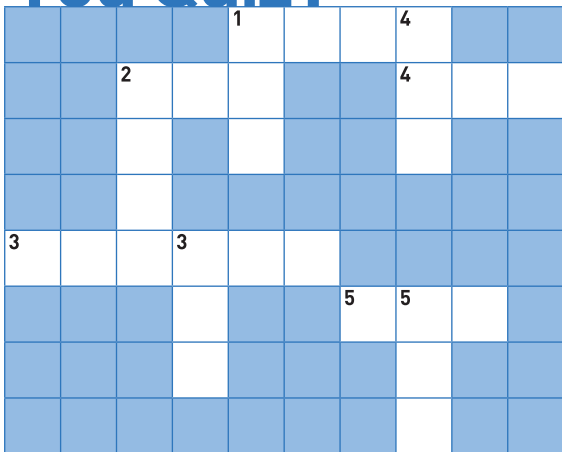
7월 6일, 평택대학교 학생 인턴 3명이 하계방학 현장실습 인턴십 과정을 시작하였다.

물류학과를 전공한 학생들에게 실무과정을 배울 수 있는 현장실습 인턴십 과정은 7월 6일부터 8월 28일까지 진행된다. 현업 근무를 직·간접적

으로 체험해보면서 직무와 적성의 적합도를 경험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시설운영팀으로 발령받은 박승진 인턴은 현재 배후단지와 PDI센터 담당구역을 직접 눈으로 살펴 보며 현장의 생생함을 배우고 있는 중이다.

시설운영팀 박승진 인턴은 “코로나 19로 인해 학교도 가지 못하고, 온라인 교육만 듣고 있어서 조금은 답답했었던 것이 사실이다(웃음). 이렇게 인턴으로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참여하니 궁금했던 점도 해결되고, 물류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점이 좋다 뜻깊은 2020년 여름이 될 것 같다” 라며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평택대학교 인턴 3명의 2개월 뒤의 모습이 기대될 따름이다.

You Quiz?



★ 응모방법

hahayaji@gppc.or.kr로 소속,성함,연락처를 기재하여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하여 당첨자를 10월에 경기평택항만공사 블로그에 발표하겠습니다.

★ 당첨 선물 (10명)

2만원 상당의 소정의 기념품 (명함케이스 + 펜)

| 가로 |

- 1 공공업무와 일반업무가 집합된 건물. 평택항의 랜드마크. '평택항○○○○'
- 2 경기평택항만공사의 흰줄 돌고래 캐릭터
- 3 평택에 위치하며, 폐교된 초등학교를 창조적인 문화와 예술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 시킨곳
- 4 은하수의 제주도 방언
- 5 평택항은 10년 연속 '○○○ 수출입 처리량 1위'

| 세로 |

- 1 바다의 레저기지로 요트, 모터보트 등의 선박을 위한 항구
- 2 돌레가 한 아름이 넘는 것을 나타내는 말
- 3 경기평택항만공사 제 8대 사장
- 4 항공, 열차, 버스 노선 등의 맨 끝 지점. '평택항 국제여객○○○'
- 5 평택항의 자동차부두, 컨테이너부두, 잡화부두, 포스코부두가 있는 곳

편집자 발행후기

안녕하세요.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업개발팀 본부장이자 '솔개나루'의 편집장 장정환입니다. 푸르른 잎이 무성하게 우거지고 있는 여름 날,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첫 사보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기획부터 편집에 이르기까지 여러 직원의 노력으로 제작한 사보가 빛을 보게 되어 보람과 감회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평택항의 홍보를 위한 길을 모색하다 그 일환으로 사보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평택항의 도약과 더불어 공사 내부직원들의 결속력 또한 탄탄하게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 되며 거리두기가 일상화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만남의 횟수가 줄어들고 무기력함을 느끼는 이들이 증가하였습니다. 사내 커뮤니케이션 역시 줄어들어 무척이나 안타까웠는데 사보 창간을 통해 부서 간 소통하는 자리가 만들어 진 점에 대해서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서면 상으로나마 직원 간의 의사소통이 한 층 원활해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사보에 담았습니다. 또 지친 일상에서 잠시나마 쉬어가는 쉼터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솔개나루'는 공사 내부의 소식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닌 평택항을 터전으로 하는 기업들의 근황도 사보에 실으며 꾸준한 왕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평택항이라는 기반을 터전으로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인 만큼 한 마음 한 뜻으로 발전을 기원하며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사보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평택항에 대해 다시 한 번 관심을 갖게 되고,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앞으로도 입주기업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솔개나루'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업개발팀
본부장 장정환

